

특집논문 **닐 스미스의 비판지리학과 한국 사회에서의 함의**

닐 스미스의 불균등발전론과 자본주의의 지리학

Neil Smith's theory of uneven development and geography of capitalism

최병두*

닐 스미스의 불균등발전론은 1984년 출간된 『불균등발전』에서 처음 제시된 이후 도시적 규모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이론과 지구적 규모에서 ‘아메리카 제국’ 또는 ‘신자본주의의 세계화’ 과정에 관한 논의로 확장되었다. 『불균등발전』에서 스미스는 이러한 불균등발전론을 정형화하기 위하여 자연과 공간의 생산, 차별화와 균등화의 경향, 공간적 규모의 생산과 시소운동 등 세부 개념들을 매우 독창적이고 통찰력 있게 제시했다. 이 개념들은 최근 지리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지만, 스미스는 이미 30년 전에 이 개념들을 이론화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불균등발전』은 오늘날 인문지리학의 고전으로 인정된다. 불균등발전론을 도시적 규모에서 체계화한 그의 젠트리피케이션 이론과 ‘지대격차’ 개념은 내부 도시와 교외 개발 과정에서 작동하는 자본의 시소운동을 포착하고 있다. 또한 2000년대 출판된 그의 두 권의 책, 보우만의 지리학이 어떻게 아메리카 제국주의에 기여했는가를 서술한 『아메리카 제국』, 그리고 신자본주의적 세계화 과정이 1990년대 이후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탐구한 『지구화의 종반』은 그 중심축에 자본의 지리적 프로젝트가 위치한 지구적 규모의 불균등발전을 규명하기 위한 그의 노력으로 이해된다. 스미스의 불균등발전론과 그 후 일련의 연구들은 결합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리학과 마르크스주의를 결합시킨 자본주의의 지리학과 그 대안을 정립하기 위한 그의 위대한 이론적 실천적 프로젝트였다고 인정된다.

주요어: 닐 스미스, 불균등발전, 자연과 공간의 생산, 차별화와 균등화 경향, 규모의 생산, 시소운동, 젠트리피케이션, 지대격차, 아메리카 제국, 신자본주의적 세계화

* 대구대 지리교육과 교수(bdchoi@daegu.ac.kr)

1. 서론

1984년 초판이 출간되었던 닐 스미스(Neil Smith)의 첫 저서, 『불균등발전: 자연, 자본, 그리고 공간의 생산』은 여기서 서술한 개념들이나 이론의 특이성과 독창성으로 그를 일약 저명한 지리학자로 만들었으며,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이 읽히는 지리학의 고전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불균등발전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이론서이다. 이 책은 모순적이고 갈등적인 자본주의의 사회공간적 역동성이 어떻게 균등화(equalization)와 차별화(differentiation) 경향을 통해 쉽 없이 불균등한 사회공간적 전환을 만들어내는가를 보여주고자 한다. 스미스는 불균등발전과 직접 관련된 공간적 차별화와 균등화 과정 및 이로 인한 자본의 시소운동뿐만 아니라 불균등발전의 이론적 전제로서 자연 및 공간의 생산, 지리적 규모(scale) 등을 논의하고, 또한 현실 세계에서 도시적 규모의 불균등발전 과정으로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및 지구적 규모의 불균등발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제국주의의 세계화에 관한 분석으로 나아간다.

스미스의 불균등발전론은 하비(Harvey)가 1982년 출판한 『자본의 한계』에서 제시한 불균등발전 이론과 비교해 볼 때, 역사-지리적 유물론에 바탕을 두고 자본의 축적과정과 관련시켜 이론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며, 이로부터 많은 개념들을 차용하고 있다. 물론 하비의 『자본의 한계』는 단지 지리적 또는 공간적 불균등발전에 초점을 둔 저술이 아니라 마르크스의 『자본론』 나아가 마르크스주의 이론 일반에서 누락된 공간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매우 종합적으로 자본순환 과정 전반에 관한 이론을 재구성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스미스의 이론보다도 더 포괄적이고 정교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스미스의 불균등발전론은 하비의 이론과는 달리 자연의 물질적 및 이데올로기적 생산, 공간의 생산(규모의 생산을 포함)에 관한 개념화를 전제로 하는 한편, 이를 현실 세계에 원용한 도시의 재활성화 과정 및 제국주의적(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유의성을 가진다.

하비는 2008년 『불균등발전』의 삼판 재출간을 축하하면서, 이 책의 서문에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적고 있다. 첫째 “이 책은 마르크스적 이론화와 지리학적 사유의 충돌이 시작 단계이지만 매우 알차고 계몽적인 국면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 계기에 지리적 불균등발전에 대한 전적으로 새로운 접근을 선도했다.” 둘째, 부와 빈곤의 양극화 심화, 놀라운 속도의 도시화와 환경 퇴락을 초래하는 지구경제의 불균등발전은 이 책이 처음 출판된 이래 4만세기 동안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가속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 책에 함의된 정치적 메시지는 거듭 환영할 만하다(Smith, 2008: vii). 스윈지도우(Swyngedouw)도 『불균등발전』을 인문지리학의 고전으로 재고찰하면서, 이 책을 고전적 저서로 만든 이유로, 첫째 이 책이 지리학을 넘어 사회과학 및 인문학 전반에 미친 영향, 둘째 자본주의에서 지리적 불균등발전의 불가피성에 관한 연구, 셋째 공간적 규모(scale)의 개념과 규모들 간 접합에 관한 이론화, 그리고 끝으로 이 책에 함의된 정치적 프로젝트의 유의성 등을 들었다(Swyngedouw et al., 2000).

이러한 스미스의 불균등발전론은 한편으로 지리학의 고전이며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이론에서 탁월한 연구로 간주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 하비의 역사지리유물론적 연구와 저서들의 압도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구체적인 해석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¹⁾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불균등발전론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규모로 발생하는 지리적 현상들에 관한 스미스의 연구를 재해석하고 평가하면서 그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우선 그의 저서 『불균등발전』을 중심으로 이 이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불균등발전론의 연장선상에서 제시된 그의 도시 쟁트리피케이션 이론과 제국주의 또는 신

1) 그러나 닐 스미스의 『불균등발전』은 이미 2000년 *Progress in Human Geography*에서 인문지리학의 고전으로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Swyngedouw et al, 2000), 이 책의 출간 25주년을 기념한 특별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는데, 여기서 발표된 Prudham and Heynen(2011)의 논문 등 5편의 논문들과 스미스(Smith, 2011)의 응답이 *New Political Economy*의 특집호로 게재되기도 했다.

자유주의 세계화 과정에 관한 그의 연구를 고찰한 후, 이러한 그의 이론이 가지는 함의와 유의성을 재평가해 보고자 한다.

2. 닐 스미스의 불균등발전론

1) 자연의 생산, 공간의 생산

닐 스미스에 의하면, “불균등발전은 자본주의하에서 자연 생산의 구체적 유형과 과정”으로 이해된다(Smith, 2008: 8).²⁾ 그가 불균등발전을 자연의 생산(그리고 공간의 생산)과 관련시켜 이해한 것은 암묵적으로 마르크스와 하비의 영향에 따른 것이지만, 좀 더 직접적으로 자연 및 공간에 관한 이론가들의 저술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에 관해 하비가 해석한 것처럼(Smith, 2008: viii), 닐 스미스가 공간의 생산, 자연의 생산 그리고 불균등발전을 긴밀하게 연결시키고자 한 것은 “르페브르(Lefebvre)의 주장, 즉 20세기 시작 이래 자본주의는 대체로 공간의 생산을 통해 존립했다는 주장을 심각하게 고려했기(그리고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되어야만 했는가를 이론적으로 보여주하고자 했기) 때문”이며, 또한 “화이트헤드(Whitehead)의 견해, 즉 인간의 본성(human nature)을 포함하여 ‘자연의 의미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시간의 특성과 공간의 특성에 관한 논의로 환원된다’는 견해를 수용함으로써 자연의 깊고 다양한 지적 및 정치적 의미들을 탐구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스미스는 이러한 점에서 우선 자연의 생산에 관한 고찰을 시작하면서, 물질적 과정보다는 이데올로기적 과정부터 먼저 다루고자 했다. 왜냐하면 자연(그리고 공간)은 우리 삶의 경관 형태에서 나타나는 공간 관계의 불균등한 유형들을 통해 생산되지만, 또한 이러한 경관에 관한 우리들의

2) 이하에서 이 책(Smith, 2008)에서 발췌한 인용문들은 저서 표기 없이 페이지 수만 기재함.

사고의 형태 속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³⁾ 이러한 점에서 스미스의 ‘자연의 생산’ 개념은 ‘자연의 사회적 구성’ 개념과 일부 중첩된다. 자연에 관한 구성주의적 관점은 자연을 주어진 사물로 이해하고 지식의 권위를 강조하는 근대 과학에 도전하여, 자연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누구의 입장에서 구성하는가라는 정치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의 사회적 구성 개념은 자연과 사회 간 물질적 상호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닐 스미스는 ‘자연의 생산’ 개념과 관련하여 과학에서의 자연, 시적 자연, 그리고 마르크스의 자연 개념 등을 비교하면서, 자연과 관련된 이데올로기, 메타포(또는 담론), 재현 등의 힘이 사회공간적 실천을 구성하는데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고찰하며,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연에 관한 지배적 부르주아적 표현에 내재된 모순을 해부하고자 한다.

다른 한편, 스미스는 자연을 인간사회와 분리시키는 부르주아적 개념화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주의적 자연관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이었다. 스미스는 자연의 생산은 물질적 사물들의 생산뿐만 아니라 자연에 관한 사고나 의식의 생산도 포함한다고 주장하면서, “사고, 개념, 의식의 생산은 우선 물질적 활동, 인간들의 물질적 상호과정, 실질적 생활의 언어와 직접 얽혀 있다”는 마르크스의 주장을 인용했다(Marx and Engels, 1964: 47; 55쪽에서 재인용). 이러한 주장은 마르크스가 물질적 생산과 상징적 생산 과정의 통합으로서 자연의 생산을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⁴⁾ 그 이후 전통적 마르크스주의는 이러한 광의적 의미를 협의화하여 단지 물질적(즉 경제적) 생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스미스는 주장한다. 예로 스미스는 프랑크푸르트학파에 속하는 스미트(Schmidt, 1971)의 자연관

3) 스미스의 ‘자연의 생산’ 개념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한 논의로 최병두(2009) 참조.

4) 스미스 주장의 핵심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하나의 통일체로 자연을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이 어떻게 비가시적이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잘못된 이원론에 의해 이해되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스미스는 마르크스의 저술에서 이러한 자연에 관한 통합적 생산의 개념을 『불균등발전』을 서술하기 전에 이미 논문으로 발표한 바 있다(Smith and O’Keefe, 1980 참조).

이 일차적 자연(원래의 자연)과 이차적 자연(인간에 의해 전환된 자연)을 분리된 개념으로 범주화했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특히 그는 일차적 자연(사용가치의 영역)이 오늘날 어떻게 이차적 자연(교환가치의 영역) 내에서 사회적으로 생산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하고자 했다.

이러한 자연의 생산 개념을 정교하게 하기 위해, 스미스는 ‘생산 일반’, ‘교환을 위한 생산’ ‘자본주의적 생산’이라는 ‘논리적, 역사적 구분’을 이용한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생산 일반’의 수준에서 인간과 자연은 노동을 매개로 한 신진대사 관계를 가지게 된다. 여기서 “자연과의 관계(물질적 교환)는 하나의 사용가치 관계이다. 자연은 순수한 사용가치로서 인간들과의 관계에 들어간다”(54쪽). 이러한 사용가치를 위한 자연의 생산은 처음에는 자연적 가능성에 따라, 그러나 점차 사회적 필요(특히 노동의 분업에 의해)에 따라 잉여를 생산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의 생산과 이를 통한 사회적 잉여(가치)의 생산은 어떤 모습을 내재한다. 즉 “요컨대, 지속적인 사회적 잉여의 생산은 인간사회가 자연의 제약으로부터 해방되는 오랜 과정을 시작하도록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자연에 대한 통제의 증가는 사회적 통제를 수반하며, 이는 자연으로부터 인간 사회 전체의 해방을 주장하지만, 이는 단지 사회 내 내적 차별화를 유발하고, 인구의 대다수를 노예화하게 된다”(59쪽).

사회적 잉여의 발생과 더불어 ‘교환을 위한 생산’이 시작되면서, 자연과의 관계는 더 이상 전적으로 사용가치 관계에 머물지 않는다. 사용가치들은 직접적 사용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환을 위해서 생산되기 때문에, 자연의 전유는 점점 사회적 형태들과 제도들에 의해 조절되며, 이러한 방식으로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 직접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자연을 생산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사회적 잉여물이 생산되며, ‘자본주의적 생산’은 이를 일반화하여 “필요 일반의 충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특수한 필요(즉 이윤)의 충족을 위해 수행된다. 교환을 위한 생산과 더불어 자연의 생산은 점차 그 규모를 확대시켜 나가지만, 자본주의적 생산 단계에 와서야 인간은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적 규모로 자연을 생산하게 된

다. 그러나 “세계적 규모에서 자연의 생산과 더불어, 자연은 점차 이른바 이차적 자연 내에서 일차적 자연의 일부로서 생산된다. 일차적 자연은 자신의 선차성과 독창성을 박탈당하게 된다”(77쪽). 일차적 자연과 이차적 자연 간 구분은 존재하지만, 자본주의에 의한 자연의 생산 과정과 이 과정을 보편적인 것으로 만드는 추동력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구분은 자연의 통합성과 비교하여 별 유의성을 가지지 못한다.

스미스의 이러한 자연의 생산 개념은 그 자체로서도 매우 유의하다고 할 수 있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자본주의에서 자연의 생산에 관한 이론을 공간의 생산과 결합시켰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스미스는 화이트헤드(Whitehead, 1920: 33; 93쪽에서 재인용)의 주장, 즉 “자연의 의미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시간의 특성과 공간의 특성에 관한 논의로 환원될 수 있다”는 주장에 초점을 두고, 공간과 자연 간에 내재한 긴밀한 관계를 포착한다. 즉 스미스는 “공간이 자연으로부터 분리된 실체로 개념화되지 않는다면, 공간의 생산 역시 자연의 생산과 논리적으로 병행하게 된다”고 주장한다(106쪽). 이러한 주장은 공간을 자연으로부터 분리시켜 개념화할 수 없는 것처럼, 자연을 공간으로부터 분리시켜 개념화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자연의 생산’에 관한 고찰에서 ‘공간의 생산’에 관한 논제로 나아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공간의 생산 개념은 르페브르(Lefebvre, 1991)에 의해 포괄적으로 논의되었지만, 불균등발전론에 관한 스미스의 논의를 통해 더욱 확장되고 재정립된다. 스미스의 해석에 의하면(121쪽), 르페브르는 생산과정에 초점에 두기보다는 사회적 생산관계의 재생산 과정에 더 많은 관심을 두면서, 후자의 과정이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적이고 숨겨진 과정이며, 또한 본연적으로 공간적인 것으로 이해했다. 반면 스미스는 특히 자연과 공간의 물질적 및 상징적 생산과정에 초점을 두었다. 즉 스미스가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 개념에 추가한 것은 “단지 공간의 생산이 어떻게 사회공간적 관계의 역동성에 의해 형성된 역사지리적 과정이 되는가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서술되고 물질적으로 구현된 지리적 부식물(etchings)

로서 자연과 환경이 어떻게 자본주의적 공간 생산의 통합적 일부가 되는가에 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Swyngedouw, 2000: 267).

스미스에 의하면, 공간의 개념화가 자연의 개념화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은 또한 “공간은 물질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며, 인간의 힘은 그 어떤 것이든 힘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93쪽). 이 점은 결국 공간은 물질이나 힘으로 가득 찬 공간이라는 점에서 공간을 절대적 공간이 아니라 상대적 공간으로 이해하도록 한다.⁵⁾ 이러한 공간 개념은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인 경험적 공간에서부터 추상화되고 일반화된 공간 개념의 역사적 등장을 추적하고 이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한다. 스미스는 핫숄(Hartshorne)의 신칸트주의적 지역 개념을 전적으로 지적 구성물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실증주의적 공간 조직과 특성은 기본적으로 절대적 공간관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들과는 달리 공간을 자연과 관련시켜 이해할 경우, 공간적 속성은 사회가치에 통합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즉 “공간적 관계를 사용가치의 속성으로 설정할 경우, 자연의 생산에서 공간의 생산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112쪽). 또한 사용가치로서 이러한 공간의 속성을 이용하기 위한 노동은 공간적 속성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장소-특정적 특수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달과정에서 등장한 추상적 노동으로 인해 상황은 달라진다. “가치로서 추상적 노동의 실현은 상품교환, 화폐관계, 신용 관리, 심지어 노동의 이동성들이 공간적으로 통합된 체계를 의미한다”(113쪽). 노동이 가치의 창출과 실현을 위해 추상화되는 것처럼, 자본의 축적과 순환 과정에서 공간도 추상화되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스미스에 의하면, 자본의 축적을 위한 특정 장소나 지역에서의 투자는 상대적 공간의 생산을 전제로 한다. 즉 “사회적 발전은

5) 스미스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공간을 절대적 공간과 상대적 공간(relative space)으로 구분하고, 후자를 (하비가 제시한 3가지 공간 개념의 구분에서) 때로는 상대적 공간으로, 또 때로는 관계적 공간(relational space)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스미스는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일반적 의미에서 인간 활동의 공간을 ‘지리적 공간’으로 지칭한다.

한편으로 공간으로부터의 해방을 증대시키지만, 공간적 고정성은 또한 사회적 발전을 점점 더 중요하게 뒷받침하게 된다. 자본의 내재적 경향인 임금노동 및 이와 관련된 가치의 보편화는 어떠한 본연적인 절대적 공간(우리가 ‘자연적 공간’이라고 부르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사회적 관계와 제도의 해방을 쉽 없이 유도한다. 자본의 이동성과 다소 덜하지만 노동의 이동성은 이러한 필수성의 분명한 구현이다”(115쪽). 이에 따라 자본은 자연적 공간으로부터 사회적 해방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는 동시에 그 만큼 상대적 공간(사회적 공간)의 생산을 전제로 한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 공간은 추상적 노동에 의한 가치 창출의 조건으로 추상화(균등화)되지만, 또한 동시에 자본의 순환과정에 내재된 바와 같이 경관상에 자본을 고정시킬 필요에 따라 지리적 공간의 차별화가 촉진된다.

2) 지리적 균등화와 차별화의 모순적 경향

불균등 발전을 직접 논의하고자 할 때, 이 용어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스미스가 주장한 바와 같이, 불균등 발전은 여러 의미를 가지며, 이에 대한 이해도 다양하다. 때로 불균등 발전은 인간 역사의 보편적 법칙 또는 ‘모순의 핵심’이라고 주장되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당연히 주어진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스미스는 불균등 발전을 자본주의 공간 생산에 내재된 차별화와 균등화의 대립적 또는 변증법적 과정으로 이해한다. 즉, “차별화와 균등화를 향한 모순적 경향은 자본주의적 공간 생산을 결정한다. 실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핵심에서 도출되는 이 모순은 불균등 발전의 외형적 패턴으로 경관에 각인된다”고 주장한다(133쪽). 물론 불균등 발전은 자본주의의 지리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의 여러 부문들 간 성장률의 차이와 관련되기도 한다.

스미스는 불균등 발전을 차별화와 균등화의 대립적 경향으로 이론화하기 위해, 우선 차별화 경향이 ‘노동의 분업’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한다. 즉 노동의 분업은 사회의 발전 수준과 조건의 공간적 차별화의 역사적

기반이 된다. 예를 들어 도시와 시골 간의 공간적 분화는 상품 교환에 기반을 둔 노동의 분업에 바탕을 둔다. 인간 역사에서 이러한 노동의 분업은 우선 자연적 조건의 차이에 기인한다. 자연적 조건의 차이에 따라, 어떤 지역에서 생산될 수 있는 생산물의 종류가 달라지며, 동일한 노동의 투입에도 생산량이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잉여생산물의 양도 달라진다. 그러나 경제가 발달할수록, 이러한 자연적 차이에 따른 이점의 전유는 줄어든다. 반면 자연적 차이는 노동과정의 체계적인 사회적 차이를 위한 기반으로 내면화된다. 즉 자연의 차이는 사회적 조직에서 양적 및 질적 차이로 전환한다. 농촌과 도시의 입지에 미치는 자연적 차이의 영향은 점차 줄어들지만, 농업과 공업 간 사회적 노동분업은 여전히 사회경제적 활동을 조건 짓는다.

지리적 공간의 차별화는 이제 자연적 차이뿐만 아니라 더욱 더 일반적으로 노동의 사회적 분업에서 도출된다. 스미스는 『자본론』에서 노동의 분업에 관한 마르크스의 서술에 바탕을 두고 이를 3가지 규모, 즉 일반적(*general*) 노동분업(공업과 농업과 같이 주요 활동들 간 분업), 특정한(*particular*) 노동분업(일반적 구분의 상이한 분야들 간 여러 세부 분업들), 미세한(*detail*) 노동분업(작업장 내에서 상이한 세세한 노동과정들 간에서 나타나는 분업)으로 구분한다. 또한 스미스에 의하면, 노동의 분업뿐만 아니라 자본의 분화도 공간의 사회적 차별화에 주요한 근원이 된다. 스미스는 자본의 재생산에 관한 마르크스의 고찰에 근거를 두고 자본의 분화를 3가지 유형, 즉 부문 간 분화(제1부문, 즉 생산재 생산부문과 제2부문, 즉 소비재 생산부문), 분야별 분화(산업 업종별 분화), 개별 자본 간 분화로 구분한다. 스미스는 나아가 이러한 노동의 분업과 자본의 분화를 중첩시켜, 공간의 사회적 차별화 과정을 4가지 유형, 즉 상이한 부문들 간 노동(그리고 자본)의 일반적 사회적 분업, 특정하게 상이한 분야들 간 노동(그리고 자본)의 분업, 상이한 개인적 자본들 간 사회적 분화, 그리고 작업장 내에서 노동의 세세한 분업으로 구분한다. 스미스에 의하면, 이러한 상이한 유형의 노동의 분업 또는 자본의 분화는 지리적 차별화를 결정하는데 동일

하지는 않지만 각각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공간의 균등화 경향은 기본적으로 ‘자본의 보편화 경향’과 이 과정에 의한 모순적인 지리적 결과로 인해 발생한다. 마르크스는 우선 유통과정을 배경으로 이러한 균등화 경향을 논의하면서, “생산물[의 판매]을 위해 시장을 끊임없이 확장 시킬 필요는 부르주아들을 지표면의 모든 부분들로 내몬다. 시장은 모든 곳으로 침투하여, 모든 곳에서 안정되고, 모든 곳에서 연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생산영역에서의 균등화를 보다 일반적으로 서술하면서, 자본은 “모든 생산영역에서 노동 착취의 조건에서 균등성을 요구한다”고 서술한다(153쪽에서 재인용). 스미스는 이러한 점에서 자본주의는 생산영역에서 노동 착취 조건(또는 생산조건)의 균등화 나아가 생산력 발전 수준의 균등화를 향한 경향이 있으며, 특히 이러한 경향은 공간적 측면에서 상대적 공간의 지구적 생산에 본연적으로 내재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스미스는 하비가 강조한 ‘시간에 의한 공간의 절멸’의 개념을 거론하면서, “시간에 의한 공간의 절멸(annihilation of space by time)은 이러한 경향의 궁극적 결과(비록 완전히 실현될 수 없지만)이다. 차별화 경향에 항상적으로 반대되는 이러한 균등화 경향과 이에 연유하는 모순은 불균등발전을 보다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이 모순은 역사적으로 불균등발전의 구체적 패턴에 녹아있다”고 주장한다(153~154쪽).

스미스는 여기서 나아가 사회적 생산의 영역에서 균등화 경향을 만들어 내는 여러 근원들을 고찰한다. 예로, 자본 축적은 노동 분업의 발전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전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자본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으로써 공간적 균등화를 촉진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적 원료의 생산은 자연의 퇴락을 초래하고, 자본주의화된 사회에서 인간의 본성은 하향 평준화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의 생산은 2가지 의미에서 균등화를 유발한다. 첫째 자연은 보편적 생산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자본의 부속물이 된다. 둘째 자연의 유용물들은 희소화되면서 질적으로 하향 평준화된다. 그리고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과 재투자를 좌우하는 기술의 발전도 지리적 균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교통통신수단의 발달은 이러한 기술의 발달과 이를 위한 혁신의 장애요인을 줄이고 지리적으로 일반화될 수 있도록 한다. 끝으로 가장 중요하게, 차별화 경향과 마찬가지로 균등화 경향도 자본에 내재적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지리적 팽창은 추상적 노동의 보편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스미스는 자본주의적 “생산 조건과 수준의 균등화는 차별화 경향과 마찬가지로 추상적 노동의 보편화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159쪽).

이러한 공간적 차별화와 균등화 경향에 관한 논의는 자본축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간적) 집적과 집중 그리고 자본 축적의 주기적 리듬(또는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이어진다. 우선 자본 축적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간적 집적과 집중은 자본의 물리적 입지와 관련되며, 따라서 자본의 점점 더 많은 양이 소수의 자본가가 통제하게 됨을 의미하는 사회적 집적과 집중과는 구분된다. “사회적 집중이 점점 더 소수의 수중으로 교환가치의 집중을 의미한다면, 공간적 집중은 사용가치의 물리적 집중을 의미한다. 자본의 사회적 집중은 자본의 어떤 공간적 집중을 생산하고 또 요청한다. 개별 자본의 규모에서 이는 생산의 조건과 수준의 지리적 차별화를 향한 우선적 추동력을 제공한다”(164쪽). 이러한 점에서 공간적 집적과 집중은 건조환경을 통한 자본축적 과정과 관련된다. 자본축적의 필요성은 자본주의의 지리적 팽창을 요구하는 한편, 이를 위해 건조환경에 지속적인 재투자가 이루어진다. 건조환경은 자본축적의 진행에 핵심적 요소이지만, 지리적으로 비이동성적인 고정자본의 형태를 띤다. 자본주의하에서 도시 발전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고정자본의 집중화된 투자와 관련되며, 이로 인해 과거에는 미분화되었던 지리적 공간을 차별화시킨다.

도시 건조환경에 대한 자본 투자는 자본축적의 좀 더 일반적인 주기적 리듬과 공명한다. 즉 “건조환경에의 투자의 역사적 리듬은 특정한 지리적 패턴을 만들어내며, 이는 다시 자본축적의 의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167쪽). 스미스는 자본축적 리듬의 다양한 유형들을 간략히 언급

하지만, 특히 그는 자본축적의 주기적 리듬을 하비(Harvey, 1982)의 자본순환이론, 즉 자본의 1차, 2차, 3차 순환론에 바탕을 두고 설명한다.⁶⁾ 또한 하비와 같은 의미로, 1차 순환에서 과잉축적의 위기로 건조환경에 투자가 확대되지만, 이러한 순환은 단지 임시적인 해결에 불과하고 결국 건조환경에의 과잉 축적을 유발하면서 자본의 거대한 감가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스미스는 이러한 점에서 하비가 제시한 3가지 유형의 위기(또는 공황)를 자본축적의 국지적 부분적 위기, 자본이 한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옮겨가는 이행적 위기, 그리고 자본주의 체계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는 지구적 위기로 구분한다. 이러한 자본축적의 주기적 리듬은 주류 경제학과 지리학에서 강조되는 균형모형의 실현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3) 공간적 규모와 자본의 시소운동

스미스는 “지리적 차별화와 균등화의 변증법이 궁극적으로 불균등발전의 패턴을 만들어낸다고 할지라도, 불균등발전 과정을 완전히 특징짓지는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두 가지 의문을 추가한다. “첫째, 이 변증법이 왜 단순히 발전 수준의 정태적 격차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불균등발전의 동태적 패턴을 유발하는가? 둘째, 이 변증법이 어떤 규모에서 작동하며, 이 규모들은 어떻게 도출되는가?”(175쪽) 첫 번째 의문과 관련하여, 스미스는 ‘공간적 균형상태’의 개념을 자본축적 위기의 내적 및 외적 해소과정과 관련하여 재해석하면서 ‘자본의 시소(see-saw) 운동 개념을 제

6) 스미스의 서술에 의하면, “이 순환들은 전체적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완벽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사실 하비는 『한계』를 끝낼 때쯤에는, 순환 과정의 통합성을 온전하게 강조하기 위하여 이 순환들 간 구분을 포기했다. 그러나 중심적 논리는 동일하게 남아있다”(168쪽). 그러나 하비의 이러한 자본순환론은 『자본의 한계』의 핵심을 이룬다는 점에서 “이 순환들 간 구분을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오늘날 자본의 3차 순환(즉 과학, 교육, 기술, 사회적 지출 등으로의 순환)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비는 『한계』 및 그 이후 연구들에서 이에 관한 연구를 거의 하지 않았다.

시한다. 두 번째 의문과 관련하여 그는 최근에 들어 재론되고 있는 ‘공간적 규모(spatial scale)’의 개념을 제시한다.

우선 첫 번째 의문과 관련하여, 스미스는 하비의 주장에 따라 “분명 공간적 균형을 향한 경향이 있지만, 자본의 핵심에 있는 강력한 힘에 의해 지속적으로 진동한다”는 점에 공감한다. 나아가 그는 ‘공간적 균형상태’의 문제를 과잉축적의 위기로 나타나는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과 관련하여 하비가 제시한 ‘공간적 조정(spatial fix)’ 개념과 관련시킨다. 하비가 개념화한 ‘공간적 조정’은 내적 전환과 외적 전환의 계기를 가진다. 내적 전환에서 공간적 조정은 자본의 확대 재생산과 연계된다. 즉 과잉축적의 상황에서 자본은 건조환경에 대한 장기적 투자를 통해 위기를 해소하고자 한다.⁷⁾ 건조환경에 유희자본의 투입을 통한 공간적 조정은 일시적으로 위기를 내적으로 해소하지만, 투자가 이루어진 지역은 건조환경 부문에의 과잉투자과 거품의 붕괴로 인해 다시 과잉축적의 위기를 맞게 된다. 그러면 공간적 조정의 외적 계기가 발생하고, 과잉축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그리고 노동)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한다.⁸⁾ 그러나 이러한 공간적 조정을 위해 추진되는 다른 지역으로 자본의 수출은 또 다른 위기를 만들어내게 된다. “위기가 점점 더 일반화될수록, 위기를 수출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 해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이 해법은 그 자신의 무덤을 파게 된다. 자본은 전자본주의적 부문과 지역으로 침투하지만, 이는 단지 이들을 자본화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경쟁자를 창출하게 된다. 자본화가 예로 식민주의의 정치적 메커니즘에 의해 방해를 받는 정도에 따라, 식민지를 과잉자본의 유의한 저장고로

7) 이러한 공간적 조정은 건조환경의 재편을 통해 미래의 자본순환을 원활히 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시간적 조정’이라고 지칭되기도 한다(Jessop, 2006).

8) 공간적 균형과 관련된 공간적 조정의 외적 역할은 해외무역과 해외시장의 확대, 그리고 전자본주의 경제의 포섭에 따른 새로운 시원적 축적에 관한 마르크스의 논의에서뿐만 아니라 룩셈부르크와 레닌도 각각 절대적 공간 개념 및 공간의 관계성에 입각하여 제시한 불균등발전과 제국주의에 관한 논의에서도 함의된 것으로 이해된다(177쪽).

전환시키지 못하게 된다”(177쪽).

스미스는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또 다른 의문을 제기한다. 공간적 조정을 통한 자본의 역외 수출이 한계에 도달한 반면, “이미 자본주의화된 영역에서 자본 수출은 이윤율의 더욱 급속한 하락과 이에 따른 위기의 일반화를 유발하는 수단이 된다. 그렇다면, ‘내적’ 공간적 조정이 가능한가?”(177쪽) 이 의문과 관련하여, 하비(Harvey, 1982)는 지리적 팽창을 통한 자본축적의 가능성은 모든 내적 공간적 해법을 위기에 처하도록 하며, 이로 인해 자본의 합리적 감가와 통제된 투자를 포함하여 생산과정을 완벽하게 재구조화할 것이 요청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공간적 고정성에 따른 건조환경의 감가는 공간적 조정의 한계를 드러낸다. 이에 따라 어떤 지역이 감가를 감수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지역(국가) 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 즉 감가는 내적 통제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상적으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또한 때로 전쟁을 통해 간헐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스미스는 하비가 『자본의 한계』에서 제시한 이러한 불균등발전론을 대체로 공감하면서 따라가고자 한다. 그러나 스미스는 이러한 공간적 조정의 내적 및 외적 계기들 간의 변증법을 이해하면서, 이러한 모순은 지리적 규모의 논제를 제기하지만, 하비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규모에 관한 논제는 하비의 설명에서 거의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체계적이고 본연적인 것처럼 보이는 모순적 논리가 자본주의적 공간생산을 유도하지만, 그 결과는 이 과정의 조적을 반영하지 않는 것과 같은 잘못된 인상을 주고 있다”(180쪽).

스미스가 제시한 ‘지리적 규모’의 논제는 바로 이러한 공간적 조정의 내적 및 외적 계기들 간 모순에서 도출된다. 그에 의하면, 자본주의의 불균등발전을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규모의 생산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규모의 이해는 우리들에게 자본의 불균등발전에 관한 마지막으로 중요한 창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지리적 규모에 관한 명확한 이해 없이는 ‘분산’, ‘이심화’, ‘공간적 재구조화’ 등의 실질적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지리적 균형상태와 이의 궁

극적인 진동의 경향을 이해하기 위한 예리한 초점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공간적 균형상태(또는 이의 결여 상태)는 어떤 규모에서의 절대적 공간의 생산을 함의하기 때문이다”(180쪽). 즉 스미스에 의하면, 일정 규모의 절대적 공간의 생산은 자본 축적과 순환에서 지리적 균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일정 규모에서 조직된 통합적 자본주의 공간경제의 창출은 가치의 결정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모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스미스는 이러한 규모에 관한 개념화에 이어서, 자본에 의해 창출되고, 자본의 구조에 내재된 공간적 규모들로 도시, 지구, 국민국가의 규모들에 관하여 서술한다.

이러한 규모의 문제는 스미스가 제시한 불균등발전론의 마지막 기본 요소로 제시된다. “요컨대 자본주의하에서 보편성을 향한 추동력은 발전의 수준과 조건의 한정된 균등화를 유발한다. 자본은 균등화를 향한 추동력이 집중된 독특한 공간적 규모들(절대적 공간들)을 생산한다. 그러나 이는 상대적 공간의 첨예한 차별화와 지속적인 재차별화를 유발함으로써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196쪽). 이러한 지리적 차별화와 균등화의 변증법은 불균등발전의 외적 패턴 이면에 놓여 있는 자본의 논리와 추동력에 내재하는 ‘시소’운동으로 지칭된다. 즉 자본은 축적과 위기의 리듬에 동조하여 이윤율이 높은 곳으로 이동하며, 이윤율이 높은 지역의 발전을, 낮은 지역의 저발전을 초래한다. 그러나 발전의 과정은 높은 이윤율을 축소시키는 반면, 저발전 지역은 낮은 지가와 임금 등으로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고 이에 따라 새로운 발전이 가능한 지역이 된다. 그러면 자본은 발전한 지역에서 저발전한 지역으로, 그 이후에는 이제 저발전지역이 된 첫 번째 지역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시소운동을 계속하게 된다(198쪽). 이러한 자본의 지리적 시소운동은 스미스의 불균등발전론의 핵심을 이루며, 절대적 공간과 상대적 공간 간 관계뿐만 아니라 고정자본과 유동자본 간,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간의 변환과정을 함의한다.

“요점은 자본이 그 자신의 이미지에 따라 고정된 지리적 세계를 창출함에 있어 발전과 저발전은 단지 자본-노동관계의 지리적 거울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지리적 공간의 역동성 역시 자본의 이미지의 표현이라는 점이다. 발전된 공간에서 저발전된 공간으로, 그리고 다시 되돌아오는 시소운동은 고정자본에서 유동자본으로 그리고 다시 고정자본으로의 항상적이고 필수적인 이동의 지리적 표현일 따름이다. 더 근본적 차원에서, 이는 사용가치에서 교환가치로 그리고 다시 사용가치로의 항상적이고 필수적인 이동의 지리적 구현이다”(199쪽).

요컨대 스미스에 의하면, 지리적 차별화는 자연적 차별화와 이에 따른 노동의 분업에 기인하지만, 경제가 발전할수록 자연적 차별화는 감소하고 대신 사회적 차별화가 증대한다. 다른 한편 자본은 축적과 순환을 통한 생산력의 증대를 위하여 생산의 조건과 수준의 지리적 균등화를 추구한다. 자연과 공간의 생산은 이러한 균등화를 위한 기본 조건이지만, 균등화는 끊임없이 지리적 공간의 차별화에 의해 진동한다. 하비가 제시한 공간적 조정의 수단으로 지리적 차별화는 다시 조정되어야 할 문제가 된다. 지리적 공간의 차별화는 여러 형태를 취하지만, 근원적으로 보면 자본의 속성인 사회적 차별화, 즉 자본과 노동 간 관계를 반영한다. 공간적 조정과 이에 따른 불균등발전이 자본 축적의 위기를 구제하기 위하여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수록, 지리적 차별화는 자본 축적의 부산물이라기보다 이에 내재된 필수품이 된다(202~204쪽).

3. 불균등발전론의 확장: 도시에서 제국까지

1) 불균등발전론과 규모별 응용가능성

스미스는 『불균등발전』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본의 시소운동에 기인한

불균등발전이 공간적 규모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 논의하면서, 앞선 논의들과는 달리 다소 불확실한 태도를 보여준다. 왜냐하면, 스미스는 자본의 시소운동에 따른 불균등발전은 “도시적 규모에서 아주 명백하게” 나타나는 반면, “국민국가 규모에서는 그렇게 명백하지 않으며”, 나아가 “국제적 규모에서 지리적 시소운동이 작동한다는 조짐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았기 때문이다(199~200쪽). 그는 도시적 규모에서 불균등발전의 패턴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는 것은 자본의 시소운동이 기본적으로 자본의 이동성에 의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도시적 규모에서 불균등발전의 패턴은 기본적으로 교외화와 내부 도시의 쇠퇴, 그리고 뒤이은 교외화의 한계와 내부 도시로의 자본의 복귀로 나타난다. 도시적 규모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자본의 시소운동과 이에 따른 불균등발전은 도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스미스에 의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위기로 인해 지역의 재구조화가 초래되고 있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자본의 시소운동과 관련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예로, 중앙 스코틀랜드와 뉴잉글랜드와 같이 저발전된 지역들은 분명 새로운 발전을 유인하기 시작했지만, 이러한 지역의 발전이 자본의 복귀의 결과인지는 그 내용과 종류에 있어서 한정적”이라고 지적한다. 나아가 국제적 규모에서 보면, “자본주의적 부와 발전은 일부 부유한 국가들로 집적하며,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적 빈곤도 세계적 규모로 분화되지만, 자본과 노동의 이동성은 국민국가 경계의 엄격성, 그리고 발전과 저발전의 대립적 조건들로 인해 제한된다”고 서술한다(200~201쪽).

스미스는 이러한 점, 즉 자본의 시소운동이 도시적 규모에서는 명백하지만 국가적, 나아가 국제적 규모에서는 거의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점은 불균등발전론의 한계를 초래한다고 인정한다. 그는 이러한 한계가 발생하는 이유로, “사실 자본은 이윤율 저하를 반등시키는 수단으로서 시소운동을 실현하고자 애쓰지만, 자본 축적이 촉진되면서 감가를 국지화하기 위해 창출해야 하는 지리적 공간이 절대적이게 되면 될수록,

자본의 시소운동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이동성에 대한 장애는 더 커진다”고 지적한다(202쪽). 즉 지리적 규모에 따라 공간적 조정이 거듭될수록, 자본의 이동성과 고정성은 지속적으로 강화된다. 그러나 자본의 이동성과 고정성 가운데 어느 하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지구적 규모에서는 좀 더 안정된 불균등성이, 도시적 규모에서는 좀 더 유동적인 불균등성이 나타나게 된다.

스미스가 『불균등발전』에서 제시한 이러한 서술, 즉 공간적 규모에 따라 지리적 불균등성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주장은 그 이후 다소 수정된다. 스미스는 스윈지도우와 카스트리가 『불균등발전』을 인문지리학의 주요 고전으로 재해석하면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답하면서, 그의 저서 『불균등발전』이 불균등발전을 유발하는 균등화와 차등화의 변증법의 [이론적] 근거들을 지적하였다면, “이 변증법이 오늘날 취하고 있는 형태는 극적으로 변화했다. 따라서 21세기의 시작과 더불어 이러한 불균등성의 경관을 유도하는 균등화와 차별화의 새로운 역동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한다(Smith, 2000: 273). 물론 이러한 주장은 그의 시소이론이 새로운 현실 변화를 전혀 설명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현실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요소들이 기존의 이론에는 누락되어 있었음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구도심에의 집중적인 재투자, 국가경제를 위한 생산의 플랫폼이었던 지역의 쇠퇴, 국가(필수적으로 국민국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경제의 공동화, 지구적 중심부로 과거 제3세계 경제의 통합, 이들 모두는 불균등발전의 시소이론에서 예시되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누락된 변화들이다. 지구적 생산을 둘러싸고 건조된 경제적 및 문화적 지구화의 집중성, 1960년대 이후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서의 급속하고 압축적인 산업혁명, 새로운 노동력의 광범위한 젠더화, 지구적 자본의 중심으로 이 국가들과 더불어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경제의 금융적 및 생산적 통합, 도시의 정치적 경제적 권력의 재구성(그리고 도시적 규모의 개조, 사하라이

남 아프리카의 금융적 제재, 그리고 방어적 폭력적 민족주의와 근본주의의 부활 등. 이들 모두는 기존의 이론에서는 잘 설명되지 않는 불균등발전의 특정한 현상들을 보여준다. 이들은 유의한 역사적 단절을 보여주지만, 불균등발전이론과 잘 조응할 것이다”(Smith, 2000: 272).

이러한 주장은 스윈지도우와 카스트리가 1980년대 이후 세계화 과정 속에서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활동의 재규모화가 국지적 지리 및 지구적 지리에서 균등화와 차별화의 극적인 전환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지리적 규모의 이론적 개념화가 긴급하다는 주장에 대한 스미스의 답변으로 제시된 것이다. 그러나 스미스의 답변은 자본의 시소운동 및 이에 의해 추동되는 사회공간적 차별화와 균등화의 모순적 경향으로서 불균등발전 이론이 새로운 현실 변화에 조응하기 위해 어느 정도 수정·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다시 10년 정도 지난 후 스미스는 『불균등발전』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지적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인정하지만, 자본의 시소운동에 근거를 둔 자신의 불균등발전론이 여전히 유의하다고 주장한다.

“비록 추상적인 용어들이지만, 불균등발전론은 자본의 시소운동을 주장했으며, 이는 이미 국지적이고 우연적인 사건이라기보다 지구적이고 체계적인 현상으로 오늘날 부상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 인도, 브라질, 한국, 그 외 남미와 아시아의 여러 다른 경제들(전후 ‘제3세계’라는 별칭을 가지고 주변화된 경제가 더 이상 아니다)의 급격한 팽창은 이러한 주장이 또 다른 규모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Smith, 2011: 262~263).

스미스는 자신의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로 우선 중국을 들면서, “[과거의] 미투자자와 저개발은 오늘날 그 반대, 즉 자본주의적 투자와 (재)개발의 홍수를 위한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이들은] 생동감 있는 지리

적 사실로서 창조적 파괴”를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그는 심지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도 자본의 시소운동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스미스에 의하면, 이 지역은 최근까지도 지구적 금융자본의 입장에서 배제된 지역이었으며, 미국 자본이 대체로 무시했던 지역이지만, 중국 자본이 이 지역의 광물자원, 항만건설, 토지 이용, 공장 건설 등을 위하여 많은 곳들에 침투하여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특히 스미스는 “중국 정부에 의해 조직된 중국 자본의 투자는 미국이나 유럽 자본에 비해 훨씬 더 급진적이고 지리적으로도 더 혁명적(자본주의의 관점에서)”이라고 주장함으로써(Smith, 2011: 263), 공간적 조정의 외적 계기로 작동하는 제국주의적 경쟁과 침탈을 지적하고 있다. 스미스는 지구적 규모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불균등발전의 사례로, 자본주의가 쓰나미처럼 강타한 구소련과 동유럽의 해체를 지적한다.

다른 한편, 스미스(Smith, 2011)는 2000년대 들어와서 중국 및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대도시들, 예로 베이징, 상하이, 뭘바이 등에서 1990년대 뉴욕, 런던, 시드니 등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지구적 규모로 도시의 젠트리피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불균등발전의 국지화(그리고 또한 지구적 투쟁의 국지화)를 추동하는 핵심적 과정이지만, 이 과정 자체는 시기별 및 지역별로 변화하고 있다. 예로 미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일찍이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의 민영화와 그 장치를 통해 임시 주거정책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추진되었다. 유럽에서는 1990년대에 ‘도시 재생’이라는 중립적이고 완곡한 표현으로 진행되었으며, 아시아에서는 국가에 의해 조직된 대규모 도시 개발과 재개발이 21세기 대도시의 경관을 재구성하면서 계급 격차를 급속도로 확장시키고 있다. 스미스에 의하면, 이와 같이 국지적 규모에서 발생한 불균등발전의 패턴은 30년 전, 즉 『불균등발전』이 출간되었던 1980년대 중반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이며, 국지적 차원에서 지구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불균등발전의 상당 부분은 당시에는 예측 불가능했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은 여전히 오늘날 자본축적의 핵심을 이룬다. 이러한 점에서,

스미스가 『불균등발전』을 출간한 이후 집중했던 도시적 규모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 연구와 지구적 규모에서의 제국주의적 또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과정에 관한 연구를 재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불균등발전으로서 도시의 젠트리피케이션

스미스는 1970년대 초 스코틀랜드에 위치한 세인트앤드루스대학교 지리학과를 다니면서 도허티(Joe Doherty)의 강의에 고무되어 교환학생으로 1년간(1974~1975)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공부했다. 여기서 그는 필라델피아 소사이어티 힐(Society Hill) 지구의 재개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지역은 미국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가장 초기에 경험했던 곳으로, 이 사업은 주로 국가에 의해 또는 국가를 통해 조직된 공적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스미스는 그의 학부 논문에서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에서 국가의 개입을 설명하면서, ‘교외로부터의 복귀’는 소비자 취향의 변화의 산물만이 아님을 밝히고자 했다. 그는 재개발에 따라 도시로 복귀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순환적 형태로 재작동하는 자본이라고 주장했다(Smith, 1979a). ‘지대격차’에 관한 개념은 아직 언급되지 않았지만이 개념은 존스홉킨스대학교로 옮긴 이후에 만들어진다, 그는 건조환경을 통한 자본의 전반적 순환과정의 일부로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이론화하고자 했다(Smith, 1979b). 스미스는 학부논문을 수정하여 미국계획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와 안티포드(*Antipode*)에 발표했으며, 이 논문들은 현재까지 젠트리피케이션 연구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문헌으로 읽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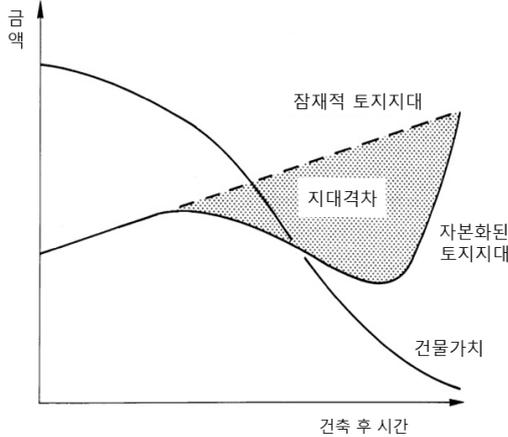
스미스는 1977년 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 하비의 제자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는 1982년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학위논문을 거의 수정 없이 『불균등발전』(1984)으로 바로 출판하였다. 그는 박사과정 연구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뿐만 아니라 지리학의 역사와 철학에 관심을 가졌으며, 특히 젠트리피케이션을 자본의 순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균등발전의 일부로 이론화하고자 했다. 여기서 그는 “사실 젠트리피케이션과 도시 재개발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구조에 뿌리를 둔 특정하고 더 큰 과정으로서 불균등발전의 선도적 부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도시적 규모에서 발생하는 차별화와 균등화 경향의 불균등발전으로 설명하였다. 스미스는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적 규모에서 공간적 재구조화의 선도적 부분을 나타내지만, 이 과정은 또한 지역적 및 국제적 규모에서도 발생한다”고 주장한다(Smith, 1982: 151).

이러한 배경에서 스미스는 『불균등발전』에서 도시 젠트리피케이션을 쉽게 설명할 수 있었다. 즉, 도시 차원에서 교외의 개발을 통한 자본의 지리적 이심화는 한편으로 교외 개발에 동반된 토지 지대의 급속한 증가와 이에 따른 발전을 유도하며, 다른 한편 이미 높은 토지 지대 수준과 이로 인한 낮은 이윤율을 보이는 도시 내부의 저발전을 초래한다. 이로 인해 퇴화된 항구이든 또는 상업용·창고용·주거용 토지이용이든 도시 내부 전체 지역에서 감가가 유발된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본의 감가는 토지 지대의 수준을 충분히 억제하여, 실제 자본화된 토지지대와 잠재적 토지지대(‘보다 높은’ 용도가 가능한) 간 ‘지대 격차(rent gap)’는 충분히 커져서 재개발과 젠트리피케이션이 가능하게 된다. 자본의 교외화로 저발전된 내부 도시는 이제 발전(또는 재발전)의 새로운 장소가 된다”(199~200쪽).

도시적 규모의 젠트리피케이션은 ‘더 큰 과정으로서 불균등발전의 선도적 부분’이라면, 스미스의 젠트리피케이션이론은 그의 더 포괄적인 불균등발전론의 선도적 부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젠트리피케이션이론은 그의 불균등발전론과 흔히 분리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후자의 이론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스미스는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학부논문을 2편의 저명 학술지에 발표한 이후 이 주제에 관하여 45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으며(Doherty, 2013), 편집서(Smith and Williams, 1986)와 단행본(Smith, 1996a)을 출간했다. 그에 의하면, 도시의 젠트리피케이션은 새로운 중간계급들의 도시 생활을 위한 내부도시 재개

<그림 1> 지대격차



출처: Clark, 1995: 1491.

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즉 젠트리피케이션은 자본이 도시의 건조환경 개발을 통해 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 기회로서 추진되며, 이로 인해 도시적 규모에서 공간적 불균등발전이 심화되는 한편, 사회적 긴장, 철거, 노숙 등이 발생하게 된다(최병두, 2005).

도시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설명에서 스미스의 가장 중요한 기여는 ‘지대격차’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설명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지대격차란 “잠재적 토지지대 수준과 현재 토지이용에서 자본화된 실제 토지 지대 간의 격차”(Smith, 1979a: 545)로 정의된다. 클라크(Clark, 1995)의 도해적 설명에 의하면(<그림 1> 참조), 특정 지역의 개발이 이루어진 시점에 가장 높았던 물리적 건조환경(예: 건축물)의 가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하락할 것이며, 이에 따라 개발 초기에 증가하던 실제 토지지대는 일정 시점이 지난 후부터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더 유용한 용도로 사용할 경우를 전제로 한 잠재적 토지지대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실제 토지지대가 일정 수준까지 하락하여 자본이 재투자될 경우, 토지지대는 다시 급속히 증가하게 되어 지대 격차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

로 줄어들게 된다.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스미스의 설명은 물론 단지 지대격차의 개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 순환에 따른 균등화와 차별화 과정의 시소운동, 즉 도시적 규모에서의 불균등발전론에 근거를 둔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 내부에 투입되었던 자본이 지속적으로 감가되면서, 교외로 이동하는 균등화 과정을 겪게 되지만, 이러한 과정이 어느 정도 진척되면 다시 지대격차가 유발되는 ‘차별화’ 과정이 나타나게 되고, 이에 따라 자본은 지대가 낮아진 도시 내부로 복귀하는 과정, 즉 젠트리피케이션이 이루어지게 된다. 지대격차의 개념에 근거한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 이론은 결국 건조환경에 대한 자본의 투자과정에서 발생하는 균등화(교외개발)와 차별화(내부도시 쇠퇴), 그리고 다시 균등화(내부도시로 자본의 복귀)가 도시공간상에 전개되는 불균등발전을 예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지대격차의 확대와 감소는 건조환경을 통한 자본순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의 증식과 감가가 지리적으로 불균등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예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도시 젠트리피케이션과 이를 설명하기 위한 지대격차 개념을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다(Ley, 1986; Smith, 1987; 김걸·남영우, 1998; 변필성, 2003).⁹⁾ 사실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스미스의 논문들이 발표된 것과 비슷한 시기에 레이(Ley, 1980)는 이의 기원과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벨(Bell)과 하버마스(Habermas)의 이론을 도입하여, 후기산업사회의 경제, 정치, 사회문화라는 세 수준에서 이의 특성을 설명하고자 했다. 특히 레이(Ley, 1986)는 캐나다의 도시들에서 진행되었던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캐나다의 도시들에서 지대격차 논제에 관한 증거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Ley, 1986: 531), 이러한 비판, 특히 지대 격차 개념에 대한 레이의 철저한 거부에 대한 응답으로 스미스(Smith, 1987a)는 “문제는

9) 그 외에도 지대격차를 둘러싸고 논쟁은 지속되었는데, 예로 Bourassa(1993)의 비판적 견해에 대한 Clark(1995)의 반론을 찾아볼 수 있다.

지대격차 논제이거나 또는 캐나다 도시에 이것이 나타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레이가 젠트리피케이션과 지대격차의 개념을 잘못 이해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한다.¹⁰⁾ 스미스의 관점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면, 레이의 설명은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에서 문화와 소비를 중요한 요소로 보면서 공급적 또는 생산적 측면을 간과했다고 할 수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스미스의 초기 설명은 이러한 점에서 이 과정에서 작동하는 공급자들의 역할과 이들의 입장을 규정하는 토지와 주택 시장의 구조적 역할 나아가 자본축적의 원리와 관련지우고자 했다. 그러나 스미스(Smith, 1996a)는 레이 등에 의해 지적된 비판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소비에 기초한 접근에서 강조되는 주요 요인들의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통합된 설명을 제시하고자 했다. 물론 그의 입장에서 개발 행위자들의 요인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기각되는 반면, 젠트리피케이션의 주요 원인을 밝히기 위한 통합적 설명 요인으로, ① 교외화와 지대격차의 등장, ② 선진자본주의 경제의 탈산업화와 백인고용의 성장, ③ 자본의 공간적 집중화와 동시적인 탈집중화, ④ 이윤율 하락과 자본의 순환적 운동, ⑤ 인구 변천과 소비 유형의 변화 등을 제시한다(최병두, 2005).

스미스가 탈산업화와 도시 내부로 백인 전문직 활동의 재집중과 이에 따른 내부 도시의 인구구성 및 생활양식의 변화를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지만, 레이의 연구에서처럼 풍요로운 도시 거주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주거지 선택에 관한 이해를 능가하여 계급 갈등의 관점에서 이해한다. 즉 스미스는 도시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이 도시 내 계급 관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그에 의하면, 도시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백인 중상위계급들은 과거 이 지역에 거주했던 많은 이민

10) 스미스(Smith, 1987a)는 레이(Ley, 1986)의 설명에서 두 가지 오류로 첫째 지대격차에 관한 논의에서 토지 가치를 주택 가치와 결합된 것으로 간주했으며, 둘째 지대 격차를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나타나는 것(지대격차는 건조환경에 대한 자본 투입/철회의 오랜 과정을 통해 전개되는 역사적 격차임)으로 잘못 이해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집단들과 노숙자 및 빈민들이 ‘도시를 흠쳐갔’으며, 따라서 이들을 도시에서 몰아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미스는 이러한 점에서 백인 중상위 계급들이 하위 계급들로부터 도시를 ‘보복적으로 탈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이 전개되는 도시를 ‘리벤치스트 도시(revanchist city)’라고 지칭하고자 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은 뉴욕 맨해튼(특히 Manhattan의 Lower East Side and Harlem)뿐만 아니라 미국 및 유럽의 여러 대도시들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3) 불균등발전으로서 제국주의와 세계화

스미스의 불균등발전론은 도시적 규모에서 지대격차에 따라 전개되는 자본의 균등화와 차별화 과정, 즉 젠트리피케이션 이론으로 정교화되는 한편, 세계적 차원에서 ‘아메리카 제국’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세련화된다. 그에 의하면, 아메리카 제국화와 세계화는 기본적으로 지리적 프로젝트이며, 따라서 새로운 상황의 변화에 적절한 자본주의의 지리학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1970년대 이후, 전후 비교적 안정되었던 자본주의의 지리학은 쓸모없는 상태가 되었고, 수많은 퍼즐 조각들처럼 못쓰게 되었다. 국지적 차원에서 범지구적 규모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지리적 질서에 관한 우리들의 가정 모두 또는 대부분은 이제 진부해졌으며, 우리는 새로운 상황들에 걸맞은 이론과 정치적 조직을 함께 재창출해야만 하는 시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한다(Smith, 1999: 37). 물론 여기서 스미스의 주장은 1970년대 이후 기존의 자본주의가 완전히 전환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작동방식과 영토적 팽창양식을 도입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최병두, 2005).

이러한 점에서 스미스는 2000년대 들어와서 세계 자본주의의 새로운 (비관적) 지리학으로 두 권의 저서를 출판했다. 『아메리카 제국: 루즈벨트의 지리학자와 세계화의 서곡』(*American Empire: Roosevelt's Geographer and the Prelude to Globalization*)(Smith, 2003)은 지리학자이자 정치가였던 보우만(Isaiah

Bowman)의 생애와 업적을 다룬 전기로, 불균등발전에 관한 연구 주제와 지리학의 역사 및 철학에 관한 연구 주제를 동시에 다루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세계화의 종반』(*The Endgame of Globalization*)(Smith, 2005)은 9·11사태 이후 미국의 부시정권이 선언한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과 이에 따른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침공에 대한 대응으로 서술된 저서로서, 불균등발전에 관한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서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권의 책은 세계화의 초기 단계 및 종반 단계에서 작동한 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서술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불균등발전에 관한 그의 관심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한 저서라고 할 수 있다(Doherty, 2013).

『아메리카 제국』은 ‘세계화의 서곡’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20세기 전반부 미국의 정치경제적 팽창과정을 윌슨과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 미국의 외교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유엔(UN)의 창안자이기도 했던 보우만의 전기를 빌려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다.¹¹⁾ 보우만은 지리학자로서 상당 기간 동안(1935~1948) 존스홉킨스대학교 총장을 역임했으며, 스미스는 이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지내는 동안 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지리학이라는 학문 영역 및 미국 제국주의의 팽창과정에서 그의 역할에 관심을 가졌는데, 특히 전자와 관련하여 스미스는 보우만이 하버드대학교를 포함하여 미국의 저명 대학교들에서 지리학과와 폐쇄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¹²⁾ 이러한 초기 관심에서 나아가 스미스는 보우만의 저서와 주장에서 제시된 그의

11) 이 책의 출간으로 스미스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전기부문 저술상을 받았고, 또한 AAG의 글로브상(Globe Award)도 받았다.

12) 스미스는 이러한 의문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지리학에 대한 낮은 인식에 대해 자괴감을 토로하면서, 영국에서는 지리학이 ‘정체되어 있지만 그래도 존중되는’ 과목이지만, 미국에서는 지리학이 ‘과학의 여왕’임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서술했다(Smith, 2003: xix). 특히 스미스는 하버드대학교 지리학과와 폐쇄와 관련된 핵심적 행위자들의 정치적 음모를 설명하면서 학과를 지키고자 했던 교수들과 학생들 그리고 폐쇄가 강행되었던 정치경제적 배경을 설명하였다(Smith, 1987).

지리학적 개념과 세계관이 아메리카 제국화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고찰하였고, 그 결과로 『아메리카 제국』을 출간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책은 단순히 보우만의 전기가 아니라 아메리카 제국의 팽창과정에 관한 역사지리서라고 할 수 있다.

『아메리카 제국』에서 스미스는 20세기 미국의 제국주의적 팽창과정을 세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했다. 첫째 단계는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전후한 시기로, 유럽 국가들이 새로운 식민지 영토를 개척하고자 했던 시기(대체로 1898년 시작하여 1919년 종료)의 제국주의 단계이다. 이 시기 미국의 팽창주의를 뒷받침했던 지경제학적 및 지정치학적 제국주의의 형태는 단순히 정치적이거나 우발적인 과정이 아니라 자본의 팽창 및 축적과 직접 관련된 불균등발전의 체계적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 시기에 보우만은 제1차 대전을 끝내기 위한 파리협상에서 각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음모에서 미국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둘째 시기는 양 대전 사이로, 국민국가의 정치·경제적 조직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적 질서 및 지리적 재편과정의 등장으로 1945년 끝을 맺게 된다. 이 기간은 흔히 위축과 고립의 시기로 특징짓지만, 닐 스미스는 이 시기를 20세기 세계화의 첫 번째 파고로 이해하면서, 특히 보우만은 ‘아메리카의 세기(American Century)’를 이론화하고 이를 시행하는데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셋째 단계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와 더불어 시작되어 현재 그 형태가 정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1989년 국가사회주의의 붕괴 이후로, 보우만은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모순적인 제국의 지경제학(지정학만이 아니라)이 마침내 실현되는 시기로 간주된다.

스미스는 이러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팽창의 각 시기에 보우만이 어떠한 지리적 언어로 미국이 처한 정치·경제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자 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그의 분석에 의하면, 보우만은 이 당시 이미 제국주의적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보우만의 제국 전망은 과거의 제한적이고 폐쇄적인 식민지 영토 침탈 및 지배와 관련된 고전적 제국주의가 아니라 아메리칸 생활공간(Lebensraum)이 지배하는 세계의 창출로서

제국을 상상하였다. 즉 보우만은 미국이 직접 지배를 하지는 않으면서 그 경제·정치적 영향력(즉 무역과 투자, 그리고 권력) 아래에 있는 세계, 또는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의 세계화에 기초한 미국 제국과 같은 것을 상상하였다. 스미스에 의하면, 이와 같이 초기 영토적 식민주의와 후기 경제적 제국주의 간의 구분은 절대적 공간에서 지구적 질서로부터 상대적 공간에서 조직된 지구적 질서로의 전환으로 이해된다. 그렇지만, 이는 또한 구조적 모순을 내재한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구적인 경제적 야망의 상대적 공간을 전망했지만, 또한 동시에 국지화된 인종적 갈등을 극복하고 내적으로 안정된 국가를 형성하면서 또한 당시 대립하고 있었던 독일과 소련을 전략적으로 제약하기 위한 영토적 목적에 부응하는 국제적 연합과 상호 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절대적 공간의 설계도 필요했기 때문이다(Smith, 2003: 184~185). 이러한 지적은 스미스가 『불균등발전』에서 제시했던 상대적 공간의 전망과 절대적 공간의 설계 간 모순을 반영한 것임을 알 수 있다.¹³⁾

스미스의 불균등발전론이 『아메리카 제국』에도 반영되었음을 찾아볼 수 있는 또 다른 단초는 ‘미국의 세기’에 관한 그의 해석이다. 이 용어는 미국의 한 잡지 발행인이었던 루스(H. Luce)가 1942년 미국의 외교정책을 장식하기 위해 미사어구로 사용하면서 대중화되었다. 그러나 이 용어는 지리적으로 차별화된 현실을 은폐하고, 아메리카 제국의 공간성을 시간으로 대체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모든 권력은 항상 공간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20세기 아메리카 제국도 분명 공간적으로 조직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세기’ 개념과 이에 기초한 아메리카 제국은 이러한 공간성을 시간성으로 대체함으로써 훨씬 더 유연하고 관계적 세계 권력의 기하학으로 표현되게 된다. 하비(Harvey, 2009: 12)의 설명에 의하면, ‘미국의 세기’라는 용어는 ‘민주, 자유, 정의’와 같은 ‘장엄한’ 단어들처럼 보편적

13) 이 점은 또한 하비가 『신제국주의』(2003)에서 제시한 자본의 논리와 영토의 논리 간 모순, 즉 자본주의의 지구적 팽창과 제국주의 국가의 영토적 폐쇄성 간 모순에 관한 논의와도 관련된다.

가치를 강조하면서, 모든 형태의 지리적 지식과 현상들을 무의미한 것으로 사소화시킨다. “미국의 지정학적 야망은 특정한 영토적 초점을 가지기보다 처음부터 지구적이며 보편적”이었으며, 따라서 루스는 미국의 목적을 어떤 ‘차별적인 지리’라는 점에서 서술하기를 기피했다. 스미스는 이 점을 “지구적 규모로 작동하는 미국의 세기에 지리는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이는 또한 동시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표현했다(Smith, 2003: 18), 지구적[보편적] 권력의 소유는 세계의 [차별적] 지리학에 대한 배려를 필요하지 않겠지만, 세계는 기본적으로 차별적 지리로 구성된다는 사실과 분명 모순된다.

스미스는 이러한 미국의 세기를 배경으로 전개되어 온 세계화 과정은 이제 정점에 달한 후 점차 종반에 들어서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가장 최근 저서인 『세계화의 종반』은 이러한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스미스는 미국적 세계화를 1990년대 신자유주의적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에서 2000년대의 신보수주의에 이르는 과정을 서술하면서, 9·11사태와 그 이후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을 추진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침공은 미국이 지구화의 종반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부시행정부는 지경제학적 관점에 지정치학을 다시 부활시키고자 하지만, 3가지 ‘1’가 미국의 지구적 자유주의의 승리를 불가능하게 한다. 3가지 ‘1’란 9·11 이후 미국의 고립주의(isolationism), 미국의 무능력(incompetence), 그리고 미국 제국의 경제적 불가능성(impossibility)을 의미한다. 스미스(Smith, 2005)도 하비(Harvey, 2005)와 유사한 맥락에서 미국이 조만간 금융위기에 처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였다. 즉 다른 어떤 국가가 미국처럼 높은 부채와 무역 불균형 그리고 엄청난 구조적 허약성을 보였다면, 세계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orld Bank)이 개입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입의 지연 또는 포기는 지구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결국 지구적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후세

인 정권을 종식시켰지만 또한 동시에 그 반사적 힘의 후폭풍으로 미국의 세계화 프로젝트도 끝나게 된 것으로 주장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전개 과정에는 어떤 모순되는 두 가지 힘이 내재되어 있으며, 결국 한편으로 신자유주의적 교리와 다른 한편으로 민족주의에 근거한 미국의 일방주의적 세계 지배 전략이 대재난적 전쟁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경제적 세계화와 군사주의적 제국은 자유주의적 기원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불균등발전의 모순을 내재한다. 그 모순적 과정은 경제적 신자유주의의 상대적 공간에서 국수주의적 신보수주의의 절대적 공간으로의 전환, 월스트리트와 관련된 시장 공간과 자원(석유)을 추구하는 영토적 규정력 간의 모순 등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구화의 종반은 제국의 군사적 또는 경제적 조공, 즉 그 자신의 불가능성에 의한 해체로 도래하는 것이 아니다”(Smith, 2005: 201). 스미스는 이러한 점에서 불균등발전을 극복할 수 있는 혁명의 역사지리적 조건과 결과를 이론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4. 불균등발전론과 스미스의 업적에 대한 재평가

스미스의 불균등발전론과 그의 생애 업적은 일관되게 지리학의 전통과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을 결합시키고자 했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관심과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불균등발전』의 서문에서 이 점을 분명히 명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한다. 즉 “자본주의의 지리는 무엇인가? 어떤 특정한 공간적 유형과 과정이 자본주의 사회를 특징짓는가? 이들은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3쪽)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추구하면서, 스미스는 불균등발전에 관한 다른 여러 진보적 이론들보다 더 강건한 방식으로 자본축적 과정에 내재된 공간적 메커니즘과 모순들을 지리학적으로 이론화하고자 했다. 이러한 점은 사이드(E. Said)가 이 책을 “역사적 자본주의의 하에서 자연과 공간의 생산이 어떻게

본질적으로 빈곤과 부를 결합시키고, 산업적 도시화를 농업적 쇠퇴와 통합시키는 경관의 불균등발전을 추동했는가를 탁월하게 이론화”한 저서로 평가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Said, 1990: 79).¹⁴⁾

물론 스미스의 연구업적은 불균등발전론뿐만 아니라 자연과 공간의 생산, 도시 켄트리피케이션과 지대격차 이론, 제국주의의 지정학과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그 외 지리학의 역사와 사상에 관한 많은 연구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그의 업적은 20세기 후반 지리학적 연구를 선도했으며, 마르크스주의 나아가 사회이론 일반에서 지리학 또는 공간연구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이러한 점에서 이글턴(T. Eagleton)은 『타임즈 문예 부록』(*Times Literary Supplement*, 1997.5: 11; Prudham & Heynen, 2011에서 재인용)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지도에 관한 학문으로 이해되어 온 지리학이 ... 이제 모든 학문 분야들 가운데 가장 관심 끄는 분야가 되었다고 하겠다. 공간에 관한 생태적인 집착, 포스트모던한 선입관 그리고 시간에 관한 탈역사적 실증은 한때 음지에 있었던 학문을 중앙무대로 옮겨 오게 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하비는 “[그의] 저서들은 학계에서 ‘공간적 전환’을 촉진하는데도 기여했으며, 이에 따라 여러 학문분야들에서 명성을 얻었다”고 회고하였다(Cowen, Harvey, et al., 2012).

특히 『불균등발전』은 자본축적 과정과 그 지리를 통합적으로 고찰한 그의 대표적 역작으로 오늘날 인문지리학의 고전으로 평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리학을 넘어 사회이론 일반에서 널리 읽히고 있다. 물론 1984년 초판 출판 당시 지리학계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연구는 쉽게 용인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비의 『자본의 한계』를 보면서, 닐[스미스]은 마르크스주의가 지리학에 필요하며, 지리학은 마르크스주의에 필요함을 알았을 것이다. 『불균등발전』은 공간이 왜 자본의 존립에 그렇게 핵심적인지, 그리고 자본주의적 발전이 왜 필연적으로 (개연적인 것이 아니라) 불균등한지에 대한 통찰력 있는 설명을 제시

14) 이 문장은 『불균등발전』 제3권에 첨부된 하비의 서문(Smith, 2008)과 Prudham and Heynen(2011)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했다”(Castree, 2000).¹⁵⁾

물론 이러한 평가는 『불균등발전』을 포함하여 그의 연구 업적이 아무런 결함이 없으며, 완벽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¹⁶⁾ 지리학자들뿐만 아니라 사회이론 일반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공간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됨에 따라, 스미스의 불균등발전론에 대한 관심도 증대했으며,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부정적 비판도 없지 않았다. 특히 『불균등발전』이 매우 압축적으로 개념화된 서술이며, 이로 인해 현실 세계의 구체적 의문들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마르크스가 우리를 위해 한 것, 우리에게 준 것은 다른 여러 가지 가운데 자연에 관한 언어, 공간에 관한 언어, 그리고 불균등발전에 관한 언어를 사람들의 삶과 노동의 관점에서 그들의 일상적 생활의 사회적 재생산 과정에 개입하여 연계시키는 능력이었다. … 만약 1984년 좀 더 구체적인 유형의 질문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면, 이는 마르크스에 대한 철저한 독해에 빠져 있었기 때문임을 이해해야 한다”(Smith, 2009a; Prudham & Heynen, 2011: 226 재인용).¹⁷⁾

15) Castree(2000)에 의하면, 『불균등발전』은 처음에는 지리학 바깥의 마르크스주의 연구에서는 큰 반응을 얻지 못했지만, 1991년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이 번역된 이후 공간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불균등발전』의 개정판이 출판되면서 새로운 관심을 끌게 되었다. 스미스는 2008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세계적 금융위기에 처해 있었던 2008년 다시 하비의 새로운 서문과 자신의 새로운 후기를 추가하여 세 번째 개정판을 출간했다.

16) 또한 진보적 지리학 내에서도 오늘날 마르크스주의가 비판적 지리학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으며, 여러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이 논쟁을 제기한 아민과 트리프트(Amin and Thrift, 2000)는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경제지리학이 이론적 한계에 도달했으며, 따라서 문화지리학이나 그 외 다른 분야들에서 새로운 비판적 지리학이 발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여러 반론들 가운데, 특히 스미스(Smith, 2005)는 아민과 트리프트가 주장하는 ‘신-비판지리학’을 브레어적(Blairite) 윤리로 가성된 자본주의에 우리 모두를 끼워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한다(최병두, 2007).

17) 그러나 하비의 회고에 의하면, 스미스는 학위논문으로 젠트리피케이션과 도시화에 관한 연구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 주제에 관해 그는 ‘지대 격차’ 이론을 포함하여 여러 논문들을 발표했지만(하비는 당시에는 ‘지대 격차’의 개념

한 권의 저서에서 이론적 작업과 더불어 구체적인 질문들을 모두 다루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스미스가 ‘마르크스에 대한 철저한 독해에 빠져 있었다’고 스스로 말하지만, 당시 또는 그 이후에도 그는 자본주의의 공간환경 변화와 자본축적 과정 및 이에 내재된 모순과 위기의 역동성 간 관계를 포괄적으로 이론화하지는 못했다. 그는 대체로 자본축적의 역동성과 관련된 주요 개념들을 인식하기 위해 주로 하비에 의존했다. 이 점은 『불균등발전』에서 스미스가 ‘자본의 감가’, ‘시간에 의한 공간의 절멸’, ‘공간적 조정’ 등의 개념을 하비의 『자본의 한계』에서 차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하비의 이론에서 빠져 있었던 여러 개념들(자연과 공간의 생산, 자본의 시소운동, 젠트리피케이션과 지대격차 등)을 개발하고 이를 마르크스의 이론 일반과 관련 지워 세련화하고자 했다는 점은 분명 스미스의 독창적인 업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자연 및 공간의 생산에 관한 스미스의 주장은 자본 축적 나아가 자본주의의 존립이 기본적으로 자연과 공간의 생산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인식하고, 지리학자들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주의나 사회이론 일반의 연구자들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스미스가 제시한 공간의 생산과 ‘자본주의의 존립’은 분명 르페브르로부터 빌려온 개념이다. 즉 르페브르에 의하면, “자본주의는 지난 1세기 동안 그 내적 모순을 회색시킬 수 (만약 해소한 것이 아니라면) 있었고, 결과적으로 ... ‘성장’을 이루는 데 성공했다. 우리는 그 대가를 계산할 수 없지만, 그 수단은 분명히 알고 있다 [그 수단이란] 공간의 점거와 생산이다”(Lefebvre, 1974: 21). 이러한 르페브르의 주장은 그의 대표적 저작들 가운데 하나인 『공간의 생산』(Lefebvre, 1991)에서 매우 포괄적으로 서술되었다. 그렇지만, 헤이넨 등 (Heynen et al., 2011)에 의하면, “『불균등발전』에서 스미스의 가장 중요한

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전혀 다른 주제로 논문을 저술하여 『불균등발전』을 출간하게 되었다. “그는 관련 자료들은 가지고 있었겠지만, 4개월 정도 만에 이 책을 저술했다”(Cowen, Harvey, et al., 2012).

기여는 자본의 존립에 대한 공간의 중요성을 르페브르보다도 훨씬 더 자세히 밝히고자 했다는 점”이라고 평가된다.

불균등발전을 추동하는 기본 요소로서 ‘공간의 생산’ 개념은 우선 공간에 관한 개념을 재규정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공간을 단순히 사회변화가 발생하는 단순 불변의 장소로 이해한다면, 지리적 불균등발전에 관한 일반론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하비가 주장한 바와 같이, “최근 사회변화 속에서 활발하게 생산되는 요소로서 공간을 이해하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르페브르와 같은 학자들의 연구는 지리학자들에게 이론적으로 큰 도움을 준다. [우리는] 공간을 사회적 행위에 대한 절대적으로 고정된 틀로 이해하기보다는 관계적이고 상대적인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자본축적이 [자본주의적] 공간과 다양한 형태의 공간성(사이버 공간에서 금융시장의 성립 등 일련의 흐름)을 창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총체적 생각은 공간과 공간성 생산에 대한 이론들의 발전 가능성을 열어준다. 닐 스미스가 이전에 주장한 바와 같이 이것은 지리적 불균등발전에 대한 일반론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필수적인 전제이다”(Harvey, 2009: 121).

뿐만 아니라 스미스는 르페브르가 제시한 ‘공간의 생산’ 개념에 앞서 ‘자연의 생산’ 개념을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논의함으로써 ‘공간의 생산’이 어떻게 유허론적이고 관계론적으로 개념화되어야 할 것인가를 보여준다. 스미스는 『불균등발전』 출간 이후에도 ‘자연의 생산’ 개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세련화시키고자 했다. 그는 이 개념이 가지는 장점을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자연의 생산 개념은 첫째 “자연 자체”의 강력한 물신성을 넘어서 자연과의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두도록 하며, 둘째 모든 사회가 어떤 규모에서 자연을 생산하지만, 특히 자본주의는 최초로 지구적 규모로 그렇게 한다는 점에서 “시간적 및 공간적 규모에 관한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여성과 자연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등치에 관한 반본질주의적 페미니스트적 비판을 고취”시키며, 끝으로 대안적 자연이 어떻게 생산되어야 할 것인가는 의문을 둘러싼 ‘자연의 정치’에 초점을 둘 수 있도록 한다(Smith, 1996b: 50; 최병두, 2009).

스미스는 이러한 ‘자연의 생산’ 개념에서 나아가 자본에 의한 자연의 포섭 개념을 제시한다. 스미스(Smith, 2007)의 주장에 의하면, 자연의 생산 개념은 마르크스의 ‘신진대사’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가 제시한 자본에 의한 노동의 포섭 개념에 유추하여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연이 어떻게 자본에 포섭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자연의 형식적 포섭이란 자본이 자연으로부터 물질을 지속적으로 확대 채굴 또는 채취하여 유용한 생산물로 전환시킴으로써 축적을 할 수 있는 상황과 관련된다. 반면 자연의 실질적 포섭이란 자본이 자연의 순환과정을 기술적으로 통제하고 활용함으로써 축적에 기여하도록 하는 상황과 관련된다(Smith, 2007: 55~61). 자본주의 초기단계에서 자본은 자연으로부터 물질의 생산을 양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축적을 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점에서 자연은 자본에 의해 형식적으로 포섭되었다. 산업화가 촉진되면서, 자본은 이러한 형식적 자연 포섭에서 나아가 자연의 생산과정을 기술적으로 통제하고 활용하는 실질적 포섭을 추동하게 된다. ‘자연의 생산’ 개념과 더불어 ‘자연의 포섭’ 개념은 단지 자연의 통제와 활용을 위한 역사적 변화 과정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생태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통찰력을 제공한다(최병두, 2009 참조).¹⁸⁾

그러나 ‘자연의 생산’ 개념은 이러한 유의성과 통찰력을 제공하지만 또한 자본주의적 공간환경 문제에 관한 분석에서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우선 이 개념은 자본주의를 공간환경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하지만, 그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미흡하다. 왜냐하면 이 개념은 “자연을 사회화하는 다른 과정들을 희생하면서 생산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으며 “자

18) 이러한 점에서, 예를 들어 하비(Harvey, 2009)는 스미스를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유전 물질들과 생물학적 과정들에 관한 소유권이 주장되고, 새로운 화학적 및 유전적 조합(유전자 조작 식품과 같이)이 만들어지게 됨에 따라, 우리는 이제 ‘모든 방법으로’ 자연의 금융화와 상품화에 개입하게 되었다. 농업적 개간에서부터 인류 발생적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결과는 엄청나며, 큰 문제를 가진다.” 최병두(2009)는 이러한 자연의 금융화와 상품화를 자본에 의한 자연의 금융적 포섭으로 설명한다.

본-자연의 변증법에서 자본 ‘측면’에 상당히 우선성”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Castree, 2001: 204). 또한 이러한 변증법에서 노동의 역할이 생략됨으로써, “예로 노동자가 그 자신의 사회적 및 생물적 재생산을 안전하게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로 특정한 방법으로 공간을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히 탐구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지적된다(Heynen et al., 2011).¹⁹⁾ 그 외에도 이 개념은 사회-자연 간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를 자본-자연의 변증법으로 추상화함으로써, 지구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유형의 요소들과 생태계에 내재된 차이들을 무시하고 자연을 마치 단일 요소로 이루어진 것처럼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²⁰⁾

스미스는 이러한 공간과 자연의 생산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자본 축적의 역동성을 균등화와 차별화 경향, 공간적 규모의 생산, 그리고 자본의 시소운동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그의 불균등발전론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간환경의 생산에서 자본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또한 이러한 공간환경의 생산이 자본 축적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규명하고 체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불균등발전을 자본주의에서 전개되는 두 가지 상반된 공간적 경향, 즉 생산의 수준과 조건을 균등화시키는 경향과 이들을 차별화시키는 경향의 변증법으로 설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가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한편으로 자연적 및 사회적 조건에 따른 노동의 분업과 이에 따라 높은 이윤을 얻기 위한 지

19) 비슷한 맥락에서 Guthman(2011)은 자연의 생산 개념에 바탕을 두고 인간의 신체가 자본주의의 재생산에서 문제가 되는 방법을 고찰하면서, 스미스가 『불균등발전』에서 인간의 자연, 즉 자본주의적 생산, 노동 그리고 자연이 생산되는 장소로서 인간 신체 간의 관계에 관한 의문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스미스(Smith, 2011)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불균등발전』에서 나는 불균등발전 이론에서 사회적 재생산을 이론화하기 위해 약간의 시간을 보냈지만 충분하지 못했고, 인간 신체에서 물질적 기반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

20) 이 점에 관해 하비(Harvey, 1996: 183)는 “사회/자연 관계에 대한 일반적 논쟁은 생태계의 엄청난 편차를 간과하고 있다. 자연 일반의 관계적 의미에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이나 많은 관심을 차이의 생산에도 기울여야 한다.”

리적 차별화와 다른 한편으로 자본 축적의 조건들을 균등화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찾아 끊임없이 팽창하고자 하는 균등화의 필요 간 모순에 따라 지리적 긴장이 항상적으로 존재한다. 자본 축적의 메커니즘은 이러한 지리적 모순과 긴장 속에서 작동한다. 이러한 점에서, “스미스는 『불균등발전』에서 자본주의 하에서 지리적 불균등발전이 왜 불가피한가를 보여주고자 한다. 자본축적 과정은 균등화와 차별화 과정을 추동하면서 끊임없이 매우 불균등한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Swyngedouw, 2000).

이러한 불균등발전은 하비가 제시한 ‘공간적 조정’의 개념을 전제로 한다. 즉 자본은 잉여가치를 생산하고 그 기반을 확장하기 위하여 이윤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소에 투자를 하지만, 자본들 간 경쟁으로 인해 이윤율이 저하하면 자본은 다시 더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자본의 시소운동은 특정 장소들에서 투자와 철수 간의 순환을 되풀이하면서, 사회공간적 불균등과 긴장을 만들어내며, 자본주의적 공간 생산의 기반이 된다. 하비는 이와 관련하여 건조환경에 투입된 자본의 고정성과 더 높은 이윤을 위한 다른 장소로의 이동성 간 모순, 즉 공간적 조정의 한계에 관심을 가진다. 스미스는 하비의 이론에 따라 과잉축적의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건조환경에의 투자, 즉 내적 공간적 조정과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전제로 한 외적 공간적 조정 간을 구분하면서, 지리적 규모의 문제를 제기한다. 스미스는 “자본의 내적 모순에 대한 공간적 조정이 불가능하지만, 이런 공간적 조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활동의 일정한 규모로 조직된 공간적 고정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공간적 통합이 가치의 형태에서 추상적 노동의 보편화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추상공간을 사회활동의 특정한 규모로 차별화하는 것은 자본을 위한 내적 필수요건”이라고 주장한다(181쪽).

스미스에게서 공간적 규모의 창출은 자본축적을 위해 필수적 요건으로 이해된다. 즉 스미스의 불균등발전론에서 또 하나의 핵심 개념을 이

루는 공간적 규모는 지도 작성에서처럼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본축적의 불균등성과 계급권력의 역동성의 일부로서 정치경제적 힘에 의해 물질적으로 그리고 담론적으로 생산되는 것이다. 달리 말해 “공간적 규모와 이들의 접합에 관한 널 [스미스]의 이론화는 사회공간적으로, 담론적 및 물질적으로, 구축된 신체, 장소, 도시, 지역, 세계가 어떻게 서로 관련되어 매우 혼란스러운 지리적 불균등 편성을 만들어내는가를 보여준다”(Swyngedouw, 2000: 268). 이러한 공간적 규모의 개념은 자연의 생산 개념과 더불어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들어와서 많은 관심과 논의의 대상이 되었지만, 스미스는 이미 1980년대 초에 불균등발전론과 더불어 이러한 개념들을 제시하면서 이론화 작업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의 선구적이고 독창적인 이론작업은 자본주의의 지리 이론 발전을 위한 주요한 길을 열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자본의 축적 과정에 내재된 이러한 규모(정확히 말해, 규모의 생산의 개념은 이와 같이 최근 지리학의 연구에서 많이 거론되면서 그 유의성이 인정되지만 또한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스미스는 처음에는 규모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자본축적을 위한 공간의 생산에 한정된 것으로 이해했지만, 이러한 자본 중심적 이해는 규모의 대립적 정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스미스는 『불균등발전』의 개정판(1990)에서 규모는 “가정의 구분에서부터 지구의 구분에 이르기까지 공간적 차별화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따라서 자본순환의 논리를 통해 그리고 ‘반대의 프로젝트’ 즉 규모의 생산에 대한 정치를 통해 어떻게 규모가 생산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정한다(Smith, 2008: 231~232). 뿐만 아니라 스미스는 권력이 공간을 가로질러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경험적 서술과 조직화를 위한 지침으로서 ‘점핑 스케일(jumping scale)’의 개념을 제안했다(Smith, 1992). 그러나 ‘점핑 스케일’의 개념이 오히려 규모가 생산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처럼 보이도록 할 수도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Mitchel, 2014: 219). 이러한 점에서 스미스는 규모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생산되고 재생산된 것임을 거듭 주장

한다. “규모는 공간적 차별화를 조직하여 한 장소와 다른 장소 간 실질적 차이(상이하하고 상이하게 생산된 사회적 자연)를 인식하고 나아가 이러한 공간환경적 차이의 동시적인 생산과 재생산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행렬로 이해될 수 있다”(Smith, 2011: 262).

스미스의 젠트리피케이션 이론은 도시 공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불균등발전을 경험적으로 고찰하고자 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대 격차’의 개념을 만들어내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지대 격차의 개념은 내부 도시에 투입되었던 자본이 감가되면서 도시 외곽으로 이동하지만 이 과정이 어느 정도 진척되면 자본이 왜 다시 도시 내부로 역류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 개념은 『불균등발전』에서 제시되었던 균등화와 차별화 과정 및 이에 따른 자본의 시소운동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핵심이 된다. 특히 이 개념은 젠트리피케이션을 통해 복귀하는 것은 교외화된 사람들이 아니라 자본임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지대 격차’ 개념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들의 옹호와 경험적 원용과 더불어 이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특히 레이(Ley, 1996) 등이 제기한 문제는 스미스가 지나치게 자본중심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설명함으로써 사람들의 선호와 생활양식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대 격차의 개념에 내재된 또 다른 문제는 이 개념이 마르크스주의적 지대론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달리 말해 이 개념은 이론적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대의 근원과 유형이 무엇인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개발업자나 토지소유자 또는 자본가에 의해 전유되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기반을 두고 좀 더 정교하게 이론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잠재적 지대와 실제 지대 간의 차이를 의미하는 이 개념은 도시 공간의 변화를 경험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즉 지대 격차의 개념에 바탕을 둔 젠트리피케이션 이론은 오늘날 미국이나 유럽의 대도시들뿐만 아니라 멕시코시티나 동경과 같이 대도

시들에서 나타나는 사례들의 연구에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도시 젠트리피케이션 이론은 이와 관련된 현상들을 간결·명료하면서도 종합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이론체계로서 이에 관한 문헌적 공백을 메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한국의 대도시화 과정은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내부 도시의 재개발과 교외의 신도시화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의 대도시들은 최근에야 교외화 현상과 도심 퇴락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국의 대도시들은 한편으로 근교의 난개발로 교통 혼잡과 환경오염 등의 비용이 증대하고 특히 도시내부로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첨단기술산업 및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히 발달하고 도시 내부에 재생사업들이 활발하게 촉진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 재생사업들은 스미스의 젠트리피케이션 이론으로 잘 설명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재생사업들은 기존의 토지이용 패턴과 이에 의존하여 살아가던 주민들을 내몰고, 새로운 토지 소유와 이용으로 지대를 상승시키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편 지구적 규모에서 아메리카 제국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관한 스미스의 연구는 하비의 『신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하트와 네그리(Hardt & Negri)의 『제국』에 비견할 정도로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아메리칸 제국』은 지정학의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지리학의 역사에서 주요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이중적 구조로 서술되어 있다. 한편으로 스미스는 지리학자 보우만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저명 인물이 되어서 윌슨 대통령과 루즈벨트 대통령의 외국정책 나아가 미국의 지구적 야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게 되었는가를 서술하고자 했다. 특히 보우만이 아메리카 제국의 등장에서 지리학의 특이한 역할을 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이 강조된다. 다른 한편, 스미스는 바로 이 아메리카 제국이 그 이전의 제국들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그리고 또한 동시에 어떤 다른 원칙 위에서 구축되

고 작동했는가를 서술하고 있다. 특히 스미스는 20세기 전반부의 아메리카 제국화가 그가 ‘아메리카 지구화’라고 부른 현대 자본주의적 지구화를 추동함에 있어 어떻게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스미스가 특히 강조하고자 한 점은 ‘아메리카 제국화(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지리적 프로젝트라는 점이다. ‘미국의 세기에 관한 지리’에 관한 그의 연구는 20세기 전반에 걸쳐 세계적 경제발전이 특징적으로 미국의 힘과 이에 대한 반응을 표현하는 언어와 방법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아메리카 제국』에 이어 2년 후 출간된 스미스의 마지막 저서, 『세계화의 종반』은 비교적 짧은 책이며, 보우만이 없는 『아메리카 제국』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 어렵고 또 다른 의미에서 정치적 긴급성을 가지고 저술된 것으로 평가된다(Mitchell, 2014). 여기서 스미스는 1990년대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아메리카 지구화가 전개된 과정을 서술하고자 했다. 그에 의하면, 1989년 시작되어 21세기 초 테러리즘과 전쟁으로 고조된 현재 시기(즉 아메리카 제국의 3번째 단계)는 역사나 지리의 종말도 아니고, 새로운 세계질서의 안내도 아니며, 앞선 두 시기의 시작과 조정 속에서 이루어진 세계화의 강력한 형태로 이해된다.

이러한 스미스의 연구들은 지구적 규모에서 불균등발전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계의 정치와 경제가 공간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전개 또는 전환해 갈 것인가를 위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최병두, 2005). 그의 주장에 의하면, 세계화라는 용어에 함의된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일 뿐만 아니라 실제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바와 같이 치밀한 지리적 프로젝트이다. 세계경제에서 전례 없는 유동성은 엄청난 비용, 즉 생산과 유통의 구조 및 하부시설에서 부동적인 엄청난 자본의 양의 필연적 고착을 초래했다. 이러한 유동성과 고착성 간의 모순 속에서, 경제적, 세계적 유연성의 가능성을 조정하기 위해 최근 전체적으로 새롭게 건설된 환경이 장소에 고정되어 있으며, 새로운 지리, 즉 불균등발전의 새로운 지리가 구축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화는 신자유주의가 실행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지구적 불균등발전의 정치경제의 중심축에 지리학이 위치해 있다. 세계화란 처음부터 자본의 프로젝트로 시작했지만, 이러한 지리적 과정을 통해 자본이 작동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스미스가 『세계화의 종반』에서 보여준 것처럼, 세계화의 제국주의적 전개과정은 현재까지 계속된다. 미국의 자유주의자 또는 신보수주의자들은 ‘코스모폴리탄’이라고 말하지만, 미국의 예외주의와 제국주의적 침략을 정당화하고자 한다(Harvey, 2009 참조). 이러한 점에서 스미스는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 적절한 자본주의의 지리학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물론 여기서 스미스의 주장은 1970년대 이후 기존의 자본주의가 완전히 전환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작동방식과 영토적 팽창양식을 도입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새로운 자본주의의 지리학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론적 작업에 한정되지 않는다. 스미스는 도시적 규모에서 반(反)젠트리피케이션운동과 더불어 지구적 규모에서 반자본주의 세력들의 연대가 강화되기를 희망한다. 그는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발발했던 금융위기 직후 도시에 대한 권리라는 구호 아래 뭉쳤던 월스트리트 점령운동을 옹호했으며, 또한 2011년 전개되었던 ‘아랍의 봄’은 이제 상서로운 시기가 되었음을 알리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그는 신자유주의는 “지배적이지만 그러나 죽었다”고 주장하면서 (Smith, 2008), “혁명의 가능성이 없다”는 어떠한 가정도 필요 없음을 강조했다(Smith, 2010: 51). 그리고 그는 혁명의 역사지리적 조건과 그 결과를 이론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끝내지 못하고 2012년 9월 29일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다.

5. 결론

스미스의 불균등발전론과 그 외 많은 연구들이 지리학 나아가 공간에

관한 사회이론 일반에 기여한 점은 아무리 격찬한다고 할지라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연구는 포괄적으로 자본축적의 사회공간적 역동성과 이에 내재된 불균등발전 과정을 이론화했으며, 특히 자본주의의 모순적 경향을 공간적으로 깊이 있게 고찰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의 초기 역작 『불균등발전』은 자연 및 공간의 생산에 관한 이론, 사회공간적인 균등화와 차별화 경향에 관한 개념화, 그리고 공간적 규모와 자본의 공간적 이동과 관련된 시소운동에 관한 고찰 등을 핵심적으로 포함한다. 이러한 세부 주제와 개념들에 관한 스미스의 연구는 부분적으로 르페브르와 하비의 연구에 의존하고 있지만, 최소한 이 주제들에 관해서는 이들보다도 개념적으로 더 통찰력 있고, 경험적으로 더 응용가능한 성과를 만들어내었다. 스미스가 이미 30년 전에 제시했던 이 주제와 개념들은 오늘날에도 계속 또는 새롭게 조명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으며, 또한 그 만큼 현실적 적실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불균등발전』은 인간 활동의 지리적 불균등성과 자본축적의 작동 메커니즘을 결합한 연구로, 점점 더 복잡하게 통합되어 가는 세계화 과정에서 심화되고 있는 불균등발전을 이해하기 위해 필히 읽어보아야 할 고전으로 인정되고 있다.

스미스에 의하면, 오늘날 지리적 불균등발전과 공간적 불균등성은 자본주의의 불가피한 속성으로 간주된다. 공간환경의 생산은 기본적으로 사회공간적 관계의 역동성에 의한 역사-지리적 과정일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공간 생산의 통합적 일부로 이해된다. 자본주의의 갈등적이고 이질적이며 차별적인 사회공간적 역동성은 균등화와 차등화 과정을 동시에 추동하며, 쉽 없는 사회환경적 전환의 불균등 과정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불균등발전론은 도시적 규모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이론을, 지구적 규모에서는 ‘아메리카 제국’ 또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틀로 응용된다. 불균등발전에 관한 이론과 이를 국지적 차원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좀 더 정교하고 세련된 설명으로 확장시키고자 했던 스미스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역사지리유물론에 기초한 ‘자본주의 지리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불균등발전 이론 및 관련 개념

들이 한국적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의 문제는 더욱 구체적인 주제들을 통해 고찰될 수 있지만, 스미스가 제시한 사고들은 그 자체로서 한국적 상황을 이해하는 이론적 및 개념적 배경이 될 수 있다.

스미스는 이 분야에서 세계적 학자인 하비의 제자이며 또한 동학자로서 세계적 명성—때로 그의 명성이 과장되고 있다는 평을 받기도 하지만—을 얻었다. 그는 하비와 마찬가지로 실증주의적 지리학뿐만 아니라 포스트모던 이론이나 개념의 수사학적 과정에 대해 비판하고, 심지어 신비판적 지리학의 주창자들과도 논쟁을 벌이면서, 마르크스주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사회공간적 불균등과 부정의에 대항하는 이론과 실천을 추구했다. 그는 ‘자본주의는 본연적으로 지리적 프로젝트’라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한다. 그의 지리학은 물론 전통적인 지리학과는 전혀 달라서, 좁게는 자연의 생산, 불균등발전, 공간적 규모, 도시 젠트리피케이션, 지대 격차 등으로 설명되며, 넓게는 제국주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나아가 더 추상적으로 역사-지리유물론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로 이해된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있어 지리학은 계급, 인종, 성의 권력관계가 전개되고 서로 투쟁하는 장이며 이에 따라 끊임없이 생성·소멸하는 경관으로서 생산되고 연계되는 ‘활발한 정치적 과정’이라고 주장된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본연적으로 지리적 프로젝트인 것처럼, 해방적인 정치적 프로그램을 통한 자본주의의 극복을 위한 정치 역시 지리적 프로젝트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윈지도우(Swyngedouw et al., 2000)가 인용한 바와 같이, 스미스의 말을 빌리면, “자본주의는 항상 근본적으로 지리적인 프로젝트였다.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혁명도 ‘지리적으로 계획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이른 것이 아니며 또한 너무 늦은 것이 아니기를 희망한다”(237쪽).

원고접수일 : 2015년 12월 8일

심사완료일 : 2015년 12월 21일

게재확정일 : 2015년 12월 22일

최종원고접수일 : 2015년 12월 25일

❖ Abstract

Neil Smith's theory of uneven development and geography of capitalism

Byung-Doo Choi

Neil Smith's theory of uneven development, proposed at first in his early masterpiece, *Uneven Development*, has been developed and extended to his theory of gentrification on the urban scale and his consideration on 'American empire' and neoliberal globalization on the global scale. In *Uneven Development*, he suggested with highly originative and in-depth insight concepts of production of nature and of space, tendency towards differentiation and equalization, production of geographical scale and see-saw movement and others in detail in order to formulate his theory of uneven development. Although it is only recently that those concepts have attracted many geographers' attention, Smith tried already before three decades ago to theorize them. And hence the text is now recognized as a classics in human geography. His theory of urban gentrification and concept of 'rent-gap' which grasp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the sea-saw movement of capital between inner city and suburbs can be seen as an application and further elaboration of his theory of uneven development on the urban scale. His two books, *American Empire* which describes how the geography of Bowman contributed to American imperialism, and *The Endgame fo Globalization* which explains how the process of neoliberalism has been developed since the 1990s until recently, can be seen as his great endeavours to explore uneven development on the global scale at the heart of which lies a geographical project of capital. Even though it cannot be said that there is no flaw in Smith's theory of uneven development and a series of his research, these would be recognized as his great theoretical and practical project to formulate geography of capitalism and its alternative which integrate geography with Marxism.

Keywords: Neil Smith, uneven development, production of nature and of space, tendency towards differentiation and equalization, production of scale, sea-saw movement, gentrification, rent-gap, American empire, neo-liberal globalization

참고문헌

- 김 걸·남영우. 1998. 「젠트리피케이션의 쟁점과 연구 동향」. 《국토계획》 33(5), 83~97쪽.
- 변필성. 2003.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일고찰: 레이와 스미스의 1980년대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6(2), 471~486쪽.
- 최병두. 2005. 「닐 스미스의 불균등발전론」. 국토연구원 편. 『현대 공간이론의 사상가들』, 한울, 331~344쪽.
- _____. 2007. 「마르크스주의 공간환경연구의 동향과 쟁점」. 《마르크스주의연구》 4(1), 96~132쪽.
- _____. 2009.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1) 자연과 자본축적 간 관계」. 《마르크스주의 연구》 6(1), 5~51쪽.
- Amin, A., and N. Thrift. 2000. "What kind of economic theory for what kind of economic geography." *Antipode*, 32(1), pp. 4~9.
- Bourassa, S. 1993. "The rent gap debunked, *Urban Studies*." 30, pp. 1731~1744.
- Castree, N. 2001. "Marxism, capitalism, and the production of nature." in Castree, N. and B. Braun (eds.), *Social Nature: Theory, Practice, and Politics*, Blackwell: London, pp. 189~207.
- Cowen, D., D. Harvey, D. Haraway, M. Rameau, B. Ramirez, et al. 2012. "Neil Smith: a critical geographer."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30, pp. 947~962.
- Clark, E. 1995. "The rent gap reexamined." *Urban Studies*, 32(9), pp. 1489~1503.
- Doherty, J. 2013. "Neil Smith, 1954-2012: The future is indeed radically open." *Urban Geography*, 34(1), pp. 1~4.
- Guthman, J. 2011. "Bodies and accumulation: revisiting labour in the 'Production of Nature'." *New Political Economy* 16(2), pp. 233~238.
- Hardt, M. & A. Negri. 2000. *Empire*. Harvard Univ. Press; 윤수중 역. 2001. 『제국』. 이학사.
- Harvey, D. 1982. *The Limits to Capital*. Oxford: Blackwell; 최병두 역. 1995. 『자본의 한계』. 한울.
- _____. 1996. *Justice, Nature and the Geography of Difference*. Cambridge, Mass, USA: Blackwell Publishers.
- _____. 2003. *The New Imperialism*. Oxford Univ. Press; 최병두 역. 2005. 『신제국주의』. 한울.
- Heynen, N., P. Hossler, and A. Herod. 2011. "Surviving uneven development: social re-

- production and the persistence of capitalism.” *New Political Economy*, 16(2), pp. 239~245.
- Jessop, B. 2006. “Spatial fixes, temporal fixes and soatio-temporal fixes.” in Castree, N. and D. Gregory (eds). *David Harvey: A Critical Reader*. Blackwell: London.
- Lefebvre, H. 1974. *The Survival of Capitalism*. Allison and Busby.
- _____. 1991. *The Production of Space*. Blackwell: Oxford.
- Ley, D. 1980. “Liberal ideology and post-industrial cit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0, pp. 238~258.
- _____. 1986. “Alternative explanations for inner-city gentrification: a Canadian assessment.”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6, pp. 521~535.
- Mitchell, D. 2014. “Neil Smith, 1954~2012: Marxist Geographer.”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104(1), pp. 215~222.
- Said, E. W. 1990. “Yeats and decolonization.” in T. Eagleton, F. Jameson and E. W. Said (eds). *Nationalism, Colonialism, and Literature*, Univ. of Minnesota press, pp. 69~98.
- Schmidt, A. 1971. *The Concept of Nature in Marx*. New Left Books: London.
- Smith, N. 1979a. “Toward a theory of gentrification: a back to the city movement by capital, not people.”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45, pp. 538~548
- _____. 1979b. “Gentrification and capital: practice and ideology in Society Hill.” *Antipode*, 11(3), pp. 24~35.
- _____. 1982. “Gentrification and uneven development.” *Economic Geography* 58, pp. 139~155.
- _____. 1987a. “Gentrification and the rent gap.”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7(3), pp. 462~465.
- _____. 1987b. “Academic war over the field of geography: the elimination of geography at Harvard.”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7, pp. 155~172.
- _____. 1988. “The region is dead! Long live the region!” *Political Geography*, 7, pp. 141~152.
- _____. 1996a. *The New Urban Frontier: Gentrification and the Revanchist Cit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_____. 1996b. “The production of nature.” in G. Robertson et.al. eds. *Future Natureal: Nature, Science, Culture*. Routledge.
- _____. 1999. “Global economic crisis and the need for an international critical geography.” paper delivered as the keynote speech at the First meeting of the East Asian Regional Conference in Alternative Geography(EARCAG), held in Kyongju and Daegu, S. Korea, 24~26, Jan. 1999; 닐 스미스. 1999. 『세계경제 위기와 국제비

- 관지리학의 필요성. 《공간과 사회》 12, 37~65쪽.
- _____. 2002. "New Globalism, new urbanism: Gentrification as global urban strategy." *Antipode* 34(3), pp. 434~457.
- _____. 2003. *American Empire: Roosevelt's Geographer and the Prelude to Globalization*.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_____. 2005. *The Endgame of Globaliz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_____. 2005b. "Neo-critical geography or the flat pluralist world of business class." *Antipode*, 37, pp. 887~899.
- _____. 2007. "Nature as accumulation strategy." in L. Panitch, and C. Leys (eds). *Coming to Terms with Nature*, Merlin Press: London, pp. 16~36; 스미스. 2007. 『축적 전략으로서의 자연』. 페니치, 레이스 편. 『자연과 타협하기』, 필맥, 39~66쪽.
- _____. 2008 (3rd edn). *Uneven Development*. Athens, GA: Georgia University Press.
- _____. 2009. Interviewed by W. S. Prudham and N. Heynen at the 105th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Las Vegas, NV; 26 March.
- _____. 2010. "The revolutionary imperative." *Antipode* 41, pp. 50~65.
- _____. 2011. "Uneven development redux." *New Political Economy* 16, pp. 261~265.
- Smith, N. and P. O'Keefe. 1980. "Geography, Marx and the concept of nature." *Antipode* 12(2), pp. 30~39.
- Smith, N. and A. Godlewska (eds.). 1996. *Geography and Empire*. Basil Blackwell: Oxford.
- Smith, N. and P. Williams (eds). 1986. *Gentrification of the City*. George, Allen and Unwin: London.
- Swyngedouw E., N. Castree, and N. Smith. 2000. "Uneven development: Classics in human geography revisited."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4(2), pp. 266~274.
- White, R. 2004. "The geography of American empire." *Raritan* 23(3), pp. 1~19.
- Whitehead, A. 1920. *The Concept of Nature*. Cambridge Univ. Press: Cambridge.